



###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 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와 책임은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

중국 기혼여성의 자녀양육기  
발달과업과 둘째 출산의 향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于坤平

# 중국 기흔여성의 자녀양육기 발달과업과 둘째 출산의향

지도교수 이 재 림

이 논문을 아동가족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1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족학과  
于 坤 平

于坤平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진 미 정 (인)

부위원장 김 경 민 (인)

위 원 이 재 림 (인)

## 국문초록

최근 중국의 저출산 현상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구증가억제를 위해 중국정부가 1982년 시작한 한 자녀 정책이 2016년에 두 자녀 정책으로 변화했고, 2021년 8월부터는 세 자녀 정책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중국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 합계출산율은 1.3명을 기록하였다. 지금까지 중국의 저출산 관련 연구 및 정책적 논의는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나, 중국 여성의 어머니이자 아내로서 첫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역시 둘째 출산의 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발달이론에 근거하여 자녀양육기의 주요 발달과업인 부모역할 적응, 부부의 양육분담, 부부관계 적응이 중국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미취학 자녀가 한 명 있고, 이 자녀 및 남편과 함께 사는 중국 기혼여성 315명이 응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자료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는 부모역할 적응(양육효능감, 심리적 양육스트레스, 경제적 양육스트레스), 부부의 양육분담(객관적 특성인 남편의 양육시간 비율, 주관적 특성인 양육분담 공평성), 부부관계 적응(현재 결혼만족도, 출산 후 부부관계 변화 수준)이었고, 종속변수는 3년 이내 둘째 출산의 향이었다.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된 통제변수는 본인과 남편의 교육수준, 본인과 남편의 소득, 본인 연령, 첫 자녀의 연령, 첫 자녀의 성별, 양육조력자 유무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역할 적응 특성 중에서는 경제적 양육스트레스만이 둘째 출산의 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제적 양육스트레스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하는 경우 둘째 출산의 향이 낮았다. 둘째, 부부의 양육분담 특성 중에

서는 지각된 양육분담 공평성이 둘째 출산의향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즉, 남편과 양육을 공평하게 분담하고 있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둘째 출산의향이 높았다.셋째, 부부관계 적용 특성 중에서는 출산 후 부부관계의 변화가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쳤다. 즉, 결혼만족도 자체보다는 부모가 된 이후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다고 지각하는 경우에 둘째 출산의향이 높았다.

본 연구는 저출산 현상이 부각되고 있는 중국의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발달이론의 발달과업 개념을 적용했다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 중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경제적 대응책 이외에도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젠더 이슈나 부부관계 측면에서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가족발달이론, 중국가족, 저출산, 출산의향, 부모역할, 부부의 양육분담, 부부관계

학번: 2018-21990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	6
제 1 절 출산의향 및 영향 요인 .....	6
1. 출산의향 개념 .....	6
2.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7
제 2 절 자녀양육기 발달과업과 둘째 출산의향 .....	9
1. 가족발달이론과 자녀양육기 .....	9
2. 자녀양육기 발달과업 수행이 둘째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	11
제 3 장 연구방법 .....	19
제 1 절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특성 .....	19
제 2 절 측정도구 .....	23
1. 둘째 출산의향 .....	23
2. 부모역할 적응 .....	23
3. 부부의 양육분담 .....	24
4. 부부관계 적응 .....	25
5. 통제변수 .....	26
제 3 절 분석방법 .....	27

제 4 장 연구결과 .....	28
제 1 절 주요변수의 전반적 경향 .....	28
제 2 절 중국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31
제 5 장 결론 및 논의 .....	33
참고문헌 .....	40
부록. 설문지 .....	54
中文摘要 .....	69
Abstract .....	70

## 표 목 차

<표 3-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22
<표 4-1> 주요변수의 기술통계 .....	30
<표 4-2>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	31
<표 4-3>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32

## 제 1 장 서론

중국 정부는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두 자녀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에 1.3명으로 급격히 감소하여(中国国家统计局, 2021a)<sup>1)</sup> 저출산 현상이 중국사회의 핵심사안으로 떠올랐다. 2021년 8월부터는 세 자녀까지 허용할 정도로 저출산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의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아이를 낳는지 또는 낳지 않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맥락에 주목하여,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녀양육기 발달과업의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1982년부터 중국은 인구수를 통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한 자녀 정책을 실행하여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한 명의 자녀만 낳는 것을 허용하였다. 한 자녀 정책은 인구 억제에는 효과적이었지만 과도한 산아정책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의 인구구조에서 문제를 발생시켰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2013년에 부모 중 한 명이 독생(형제자매가 없는 자)인 경우에 한하여 단독둘째허용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 해결에는 큰 효과가 없었다. 결국 2016년 1월 1일부터 한 자녀 정책을 전면 폐기하고 두 자녀 허용정책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출생아수는 전면적둘째허용정책이 시작된 2016년에만 1,78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2015년 1,655만 명), 그 이후에는 2017년 1,723만 명, 2018년 1,523만 명, 2019년 1,465만 명, 2020년 1,200만 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

1) 합계출산율의 경우, 1960년대에는 6명 정도였으나 한 자녀 정책을 실행한 1980년대에는 2-2.67명이었으며, 1992년에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2.1명 이하인 1.98명이 되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2019년 대까지는 꾸준히 1.6-1.7명 수준이었다가, 2020년에 1.3명으로 급락했다(中国国家统计局, 2021a). 중국통계청(2021) 인구조사보고에 따르면 2020년 가구당 평균인원수는 2.62명이었다(中国国家统计局, 2021a).

이다(中国国家统计局, 2021a).

현재 중국의 맥락에서는 기혼 여성의 둘째 자녀 출산의향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혼한 부부가 첫째를 낳으려는 경우는 90% 이상으로(郑诗泽, 2019) 대부분의 부부가 한 명의 자녀는 낳으려고 하지만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망설이는 경향이다. 중국 가임기 여성의 이상자녀 수는 1.96명으로 2명에 가깝다(贺丹 等, 2018). 자녀가 2명인 상황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둘째 자녀를 출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자녀가족에서 두 자녀 가족으로 이행률이 낮은 상황에서 세 자녀정책이 실행이 시작해도 현재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출산 및 자녀양육이 여전히 여성의 책임인 중국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만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기혼여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자녀 출산에 대해 결정할 때 부부는 첫째 자녀의 경우보다 더욱 신중하고 이성적일 수 있다.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경험을 통해 자녀를 키우는 것은 어떤 일인지 알게 되고, 더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기 때문이다(강유진, 2007; 김정석, 2007). 즉,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의 경험이 둘째 출산의향에 크게 작용한다(임현주 외, 2011). 부모로서, 부부로서 첫째 자녀 양육경험이 긍정적이었다면 둘째 자녀를 갖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중국에서는 두 자녀 정책이 시작된 2016년부터 둘째 출산의향 관련된 연구가 활발해졌다. 중국의 둘째 출산의향 연구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安建芸 等, 2017; 刘妮英, 2017; 徐帅, 石婧瑜, 2019; 周陈凤, 2019), 조부모의 양육지원(劳雅红 等, 2018; 杨菊华, 2018), 남아선호와 같은 자녀가치관(贾志科, 罗志华, 2018; 赵琳华 等, 2014)에 관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둘째 출산의향 관련 선행연구에서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로서 그리고 부부로서의 경험이 둘째 자녀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첫째 자녀 양육경험과 둘째 출산의향의 관련성을 탐색하기에 적절한 이론으로는 가족발달이론이 있다. 가족발달이론의 발달과업 관점에서 보면, 첫째 자녀 출생 이후 부모로서, 부부로서 필요한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자녀양육기에 잘 적응할 경우 다음 자녀를 출산하려는 의향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지적한 자녀양육기의 대표적인 과업으로는 부모역할 적응(김양희, 2000; 정현숙, 유계숙, 2004), 부부의 양육분담(김양희, 2000; 정현숙, 유계숙, 2004), 부부관계 적응(김양희, 2000; 정현숙, 유계숙, 2004)이 있다.

우선, 첫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모역할에 잘 적응하면 둘째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첫째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양육효능감이 높고, 심리적인 양육스트레스를 적게 받을수록 둘째 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최미란, 장경은, 2017; 현정환, 2019). 중국에서는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둘째 출산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밝혀졌다(王广州, 张丽萍, 2017). Leibenstein(1974)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를 더 낳음으로써 얻는 만족 또는 효용이 그에 수반되는 비용보다 클 때 자녀를 원하게 된다. 따라서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를 키우는 일에 대해 부담보다 즐거움, 성취감, 효능감을 더 많이 얻게 되면, 보상이 크기 때문에 추가 출산의향이 높을 것이다. 반대로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한 심리적 및 경제적 스트레스 수준이 높으면, 그에 대한 비용이 보상보다 크기 때문에 추가출산의향은 낮을 것이다.

둘째, 부부가 효과적으로 양육을 분담한다면 둘째 출산의향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도 남편이 양육분담을 많이 할수록 둘째 출산의향이 높다고 보고되었다(Li & Jiang, 2019). 또한 양육분담 비율이 공평할수록 둘째 출산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 있다(Aassve et al., 2015; McDonald, 2000). 영유아기 자녀를 돌보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돌봄노동이다. 흔히 한국에서 ‘독박육아’라고 부르는 현상처럼 자녀돌봄의 역할이 한쪽 부모에게만 집중될 경우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둘째 출산에 대해 부담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자녀양육기의 부부관계 적응은 둘째 출산의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자녀출산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치며(서미정, 2019; Belsky & Rovine, 1990), 부부관계의 질은 출산의향에 영향요인이 될 수 있다(김은경, 2014; 임현주, 이대균, 2013). 첫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통해 부부로서 얻게 된 행복감과 만족감이 있다면, 첫째 자녀 출산 이후 결혼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듯 부부관계의 만족감이 높고, 부부관계의 질이 높을 때 그 결과 둘째 출산에 대한 동기가 높아진다(임현주, 이대균, 2013). 반대로 첫 자녀의 출생으로 인해 부부의 낭만적 측면이나 동료감이 감소하고 상호지지가 줄어드는 등 첫째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부관계의 적응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부부의 관계를 균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며 둘째 출산의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전이기에 부부관계 적응 수준이 변화한다는 다수의 선행 연구(서미정, 2019; 한경혜 외, 2020; Belsky & Rovine, 1990)를 토대로, 자녀양육기의 전반적 결혼만족도와 첫째 출산 이후 부부관계의 변화 수준을 각각 고려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양육기 발달과업인 부모역할 적응, 부부의 양육 분담, 부부관계 적응 수준이 중국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중국의 맥락에서, 본 연구를 토대로 자녀양육기 발달과업 수행과 둘째 출산의향의 관계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저출산 현상 대응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제언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부모역할 적응(양육효능감, 심리적 양육스트레스, 경제적 양육스트레스)은 중국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부부의 양육분담(남편의 양육시간 비율, 양육분담 공평성)은 중국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부부관계 적응(결혼만족도, 출산 후 부부관계 변화)은 중국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가?

##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 제 1 절 출산의향 및 영향 요인

#### 1. 출산의향 개념

의향은 행동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개인이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여 하고 싶고 달성하고 싶은 생각, 즉 행동의 동기적 요인이다(Ajzen, 1991). 출산의향이란 향후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에 대한 의사 또는 욕구와 생각의 정도이다(Richter et al., 1994). 출산행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출산자녀 수나 출산율과는 다르게, 출산의향은 출산행동 이전에 이루어지는 의사 를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출산의도, 출산의향, 출산계획 등의 용어를 혼용하고 있는데, 모두 향후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생각과 의사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비록 출산의향이 출산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출산의향을 가져야 출산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출산의향은 미국에서 1950년 효율적인 출산예측을 위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Westoff & Ryder, 1977). 선행연구에 따르면 생리적인 문제, 연령 등 객관적인 원인으로 인해 출산행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현대 사회에서는 피임 등이 발달하여 출산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의향은 실제 출산행동을 전망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choen et al., 1999; Thomson, 1997). 개인의 출산의향이 거시적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출산의향이 어떠한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 2.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여러 국가에서 출산의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중국과 인접한 대만, 싱가폴, 한국, 일본 등의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다수 있으며 (Kan & Hertog, 2017; Kan et al., 2019; Yang, 2017) 독일, 이탈리아, 영국, 스웨덴, 헝가리, 핀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등 유럽에서도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Bühler & Fratzcak, 2007; Cooke, 2009; Jefferies et al., 2000; Olah, 2003). 호주 및 미국의 연구도 있다(Sobotka et al., 2011; Torr & Short, 2004). 이렇듯 다양한 국가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에 따르면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미시적 측면, 거시-미시 중간 측면, 거시적인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Balbo et al., 2013).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은 개인이나 부부의 특성인 연령, 소득, 교육수준, 가치관 등이 있다. 첫째,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둘째 출산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고선강, 2019; 김일옥 외 2011; 최지훈, 2018). 둘째, 소득과 출산의향의 관계는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부인과 남편의 소득은 둘째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많다(김일옥, 정구철, 2015; 최지훈, 안선희, 2018; Bao et al., 2017). 둘째 출산은 추가적인 돌봄, 교육 등 지출이 따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에 가구소득과 둘째 출산의 연관이 없다는 연구도 있다(김일옥, 정구철, 2015). 여성의 소득이 높을수록 출산의 기회비용이 더 높기 때문에 출산의향이 낮다는 연구도 있고(Lee & Mason, 2010), 부부의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를 많이 갖는 것 보다, 적게 낳아 잘 키우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과 출산의향은 부적 관계라는 연구도 있다(Becker & Lewis,

1973; Will, 1973). 셋째, 교육수준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 본인의 교육수준이 둘째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고선강, 2019)도 있지만, 부정적인 영향요인이라는 연구(Cheng & Hsu, 2020)도 있다. 부인의 교육수준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편의 교육수준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Yang, 1993)도 있고, 남편의 교육수준을 통제할 경우 아내의 교육수준은 둘째 출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Kreyenfeld, 2002)도 있다. 중국의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둘째 출산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으며(安建芸 等, 2017; 刘妮英, 2017; 徐帅, 石婧瑜, 2019; 周陈凤 等, 2019), 반대로 교육수준 높으면 둘째 출산의 가능성성이 낮다는 연구도 있다(劳雅红 等, 2018). 넷째, 결혼, 출산, 자녀 등 가족 관련 가치관이 긍정적일수록 출산의향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김일옥, 정구철, 2015; 정혜은, 진미정, 2008).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거시 중간 요인은 사회자본, 세대간 지원,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 조부모의 기대 등이 있다. 중유럽과 동유럽에서 사회자본은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Bühler & Fratzcak, 2007; Bühler & Philipov, 2005; Philipov et al., 2006). 한국과 중국에서는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많이 받을수록 둘째 출산의향이 높았다(김주희, 고선강, 2015; 최지훈, 안선희, 2018; Wang et al., 2019; 杨菊华, 2018). 둘째 출산에 대한 사회적 압력(Balbo & Mills, 2011)이나 조부모의 의견 및 기대(白鸽 等, 2019)가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있다.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은 경제상황, 출산 관련 정책 등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경제위기 시기에 출산율이 떨어졌으며

(Sobotka et al., 2011) 호주에서도 GDP와 출산율은 정적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Sobotka et al., 2011). 반대로, 경제적 상승은 여성의 고용을 증가시켜 출산의 기회비용이 증가함에 출산의향이 떨어질 가능성이 보고되었다(Butz & Ward, 1979). 정책 및 복지제도와 관련하여 중국에서는 주택비용과 보육비용이 상승하고 자녀양육의 상품화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복지제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출산의 경제적인 비용을 줄일 수 없으므로 둘째 출산의향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다 (陈秀红, 2017). 한국의 연구에서는 육아수당, 육아휴직 등이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고선강, 2019; 김일옥 외, 2011; 송유미, 이선자, 2016; 최지훈, 안선희, 2018). 중국의 선행연구에서도 미시적, 미시-거시 중간적, 거시적 측면을 다루었지만 첫째 자녀를 양육하면서의 경험이 둘째 출산의 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 제 2 절 자녀양육기 발달과업과 둘째 출산의향

### 1. 가족발달이론과 자녀양육기

인간발달이론을 가족에 적용한 가족발달이론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이 단계별로 성장하고 변화한다고 본다(기쁘다 외, 2020). 가족발달이론의 핵심적인 개념으로는 가족생활주기와 발달과업이 있다. 가족생활주기는 결혼을 통한 가족의 형성을 시작으로 하여 가족구성원의 확대와 수축, 한 배우자 사망으로 이루어진 해체기까지 변화한다.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에는 이행할 발달과업이 있다. 발달과업은 통상적으로 특정한 단계에서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과업이다(한경혜 외, 2020). 한 단계의 발달과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갔을 때 도움이 된

다(정현숙, 유계숙, 2004; 한경혜 외, 2020). 예를 들어 자녀양육기에 발달과업을 잘 이행하는 것이 다음 단계의 성공적인 전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족생활주기의 각 단계를 구분하는 방법과 단계의 명칭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전통적인 가족생활주기는 첫째 자녀의 연령에 기초한 Duvall(1977)의 8단계 가족생활주기다. 즉 신혼기, 자녀출산기, 학령전 자녀기, 학령기 자녀기, 10대 자녀기, 진수기, 중년기, 노년기 8단계로 나누어진다. 한국에서는 공세권과 동료들(1987)의 단계와 유영주(1984)의 단계가 잘 알려져 있다. 공세권과 동료들(1987)은 1976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안한 핵가족 주기의 기본모형에 준하여 한국의 가족생활주기를 형성기, 확대기, 확대완료기, 축소기, 축소완료기, 해체기 6단계로 제시하였다. 유영주(1984)는 가족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 성인기, 자녀 결혼기, 노년기 6단계로 분류하였다.

가족발달이론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각 단계의 고유한 특성과 발달과업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서 많은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이론이다. 가족발달이론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지만, 중국에서는 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만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인의 둘째 출산의향을 연구함에 있어서 적절한 이론적 틀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기의 발달과업 이행이라는 이론적 관점에서 첫 자녀 양육과정의 경험이 둘째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점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생활주기 중 첫 자녀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의 시기에 둘째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중국에서는 자녀 간 터울을 2-4년 정도 두는 것을 가장 이상적으로 인식하고 자녀의 연령이 높을

수록 출산의향이 감소한다(曹艳春, 2017). 중국통계청(中国国家统计局, 2015)에 따르면 여성이 첫째 자녀를 가장 많이 출산하는 시기는 23, 24 세 사이였고 둘째 자녀를 가장 많이 출산하는 연령대는 28, 29세였다. 따라서 둘째 자녀를 출산할 확률은 첫째 출산 후 5년 이내에 가장 높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첫 자녀가 미취학인 중국 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첫 자녀가 미취학인 시기를 가족발달이론의 선행 연구를 토대로 자녀양육기라고 지칭하고자 한다. Duvall(1977)의 8단계 가족생활주기모형에서 첫 자녀가 미취학인 시기는 ‘자녀출산기’와 ‘학령 전 자녀기’의 두 단계이다. 이 두 가지 단계는 개념적으로 차별적이지만, 발달과업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많다. 이 때문에 공세권과 동료들(1987)이나 유영주(1984)는 두 단계를 구분하지 않았다. 공세권과 동료들(1987)의 가족생활주기에서 첫 자녀가 미취학인 시기는 ‘확대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확대기는 첫 자녀 출생에서부터 막내 자녀 출생까지를 의미하여, 자녀의 수에 따라 유동성이 크다는 점에서 애매하다. 유영주(1984)의 한국형 가족생활주기에서 ‘자녀출산 및 양육기’(첫째 자녀 출생부터 첫째 자녀 초등학교 입학까지)는 첫 자녀가 미취학인 본 연구의 관심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영주(1984)의 자녀출산 및 양육기를 줄여서 ‘자녀양육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2. 자녀양육기 발달과업수행이 둘째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자녀양육기의 대표적인 과업으로는 부모역할 적응(김양희, 2000; 정현숙, 유계숙, 2004), 부부의 양육분담(김양희, 2000; 정현숙, 유계숙, 2004), 부부관계 적응(김양희, 2000; 정현숙, 유계숙, 2004) 3가지가 있다.

## 1) 부모역할 적응과 둘째 출산의 향

첫째 자녀의 출생은 가족에게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사건이다. 부부는 아내, 남편의 역할에서 어머니, 아버지 역할이 추가되어 부부관계 중심에서 부모-자녀 3인관계로 확장된다(한경혜 외, 2020). 이 시기의 부부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부모역할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며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동시에 양육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다(김기원 외, 2010). 즉, 양육하는 과정에서 효능감이나 성취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경험한다. 긍정적 자녀양육 경험과 부모됨의 성취감은 후속출산의 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김미나, 이소은, 2018), 양육스트레스는 출산의 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현주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적응을 양육효능감, 심리적 양육스트레스, 경제적 양육스트레스의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부부의 양육효능감은 자녀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에 필요한 양육행위에 대한 전반적 수행능력이다(현정환, 2019).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다양한 과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인식하는 자신의 믿음을 의미한다(Coleman & Karraker, 2003; Hastings & Brown, 2002). 양육효능감이 높을수록 후속출산의 긍정적이라는 연구가 다수 있다(김미나, 이소은, 2018; 송영주 외, 2011; 이진화, 민정원, 2015; 임효진 외, 2015). 김미나와 이소은(2018)의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과 후속출산의 향의 정적인 관계가 나타났으나, 현정환(2019)의 연구에서는 양육효능감과 후속출산의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의 선행연구에서 양육효능감과 둘째 출산의 향의 연관성에 대해 언급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러나 둘째 자녀가 있는 가정은 한 자녀만 있는 가정보다 양육효능감이 더 높다는 중국의 연구(李甜甜 等, 2020)를 토대로, 중국 여성의 양육효능감이

둘째 출산의 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부모역할을 하면서 경험하는 부담감으로서 부모가 처한 상황이나 자녀양육이 부모의 기대와 부합하지 않는 경험이 스트레스로 평가되어 부모 스스로 지각하는 것이다(Abidin, 1992). 한국의 선행연구에서 양육스트레스는 둘째 출산의 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효진 외, 2015; 최미란, 장경은, 2017; 하민경, 2020; 현정환, 2019; Hwang & Kim 2021). 즉, 부부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높은 수준으로 경험할수록 추가출산을 할 가능성이 낮았다. 중국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적인 양육스트레스로 인한 스트레스가 출산의 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본 연구가 많다(李静雅, 2017; 王广州, 张丽萍, 2017; 王蓓, 2018). 그러나 한국 등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볼 때 경제적인 양육스트레스 이외에 정서적인 양육스트레스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임효진 외, 2015; 최미란, 장경은, 2017; 현정환, 2019; 하민경, 2020). 그러므로 중국 여성의 부모역할 적응에 있어 양육스트레스를 고려할 때 경제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자녀를 키우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양육스트레스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2) 부부의 양육분담과 둘째 출산의 향

전 세계적으로 남성의 양육 및 가사노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대부분의 돌봄과 가사노동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여성이 양육 및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은 남성에 비해 미국에서 2배 이상(Bianchi et al., 2000; Coltrane, 2000)이며, 대만에서는 3.4배(Cheng & Hsu, 2020)라고 한다. 중국의 경우 아내가 하루 가사노동을 하는 시간은 남편보다 2.7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Yang, 2017).

자녀양육기 부부의 양육분담은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자녀를 먹이고, 입하고, 씻기고, 재우고, 놀아주는 등의 반복적인 돌봄노동은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한다. 첫 자녀의 출생으로 여성의 가사 및 양육시간은 급격히 늘어나지만 상대적으로 남성의 양육시간은 여성에 비해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중국에서는 예전에 비해 남성들이 양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여성이 여전히 남성에 비해 자녀양육에 대한 역할과 책임에 대한 것을 요구받고 있다(郭戈, 2019; 李静雅, 2017).

선행연구에서도 남편이 양육 및 가사 분담에 많이 참여할수록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밝혀졌다(우해봉, 장인수, 2017; 정은희, 최유석, 2013; Kan & Hertog, 2017; Kan et al., 2019). Hwang and Kim(2021)의 연구에서는 한국 남편의 자녀양육 시간이 부인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킴으로써 둘째 출산의향으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보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사노동 분담보다 양육분담이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났다(Cooke, 2009; Neyer et al., 2013). 유럽에서는 여성과 남성의 양육분담이 공평할수록 둘째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Aassve et al., 2015; McDonald, 2000).

중국에서는 자녀양육기 어머니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양육분담의 이슈가 특별히 중요할 수 있다. 중국에서 25~55세 여성의 취업률은 90% 정도에 이른다(但文月, 2020). 이러한 맥락에서 취업여성이 자녀출산 이후 직장에서 받은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연구가 최근 많이 이루어졌다(兰庆庆 等, 2019 ; 黄桂霞 等, 2017; 孙婧琦, 2019). 그러나 직장에서의 불공평한 대우 이외에 양육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불공평한 상황도 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의 ‘독박육아’라는 신조어와 유사하게 중국에서는 ‘喪偶式育儿’(배우자를 잃고 홀로된 것처럼 홀로 육아를 전담한다는 의미)라는 표현이 등장하여 자녀양육기에 여성

에게 집중되는 돌봄노동의 불균형을 비판하고 있다.

중국 자료를 사용하여 양육 및 가사 분담과 출산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살펴보면 Kan과 동료들(2017, 2019)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의 기혼부부의 가사분담과 출산의향의 연관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 모든 국가에서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많을수록 부인의 출산의향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중국의 자료는 2006년, 2012년에 수집되어 둘째 허용정책 이후의 자료가 아니며, 추가출산 여부를 출산의향으로 간주하였다. Yang (2017)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가사분담과 이상자녀수 간에 연관성이 없다고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둘째 허용정책 이전인 1993-2011년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출산의향이 아닌 이상자녀수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남성이 가사노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율이 50%를 넘었고,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비율이 70%가 넘는 등 참여 자체가 미비했기 때문에 출산과의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을 수 있다. 출산 관련된 중국의 대규모 데이터로는 중국종합사회조사(Chinese General Social Survey, CGSS), 중국 건강과 영양조사(China Health and Nutrition Survey, CHNS)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인 대규모 패널데이터는 2016년 둘째 출산허용정책 이전에 수집된 자료이기 때문에, 둘째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둘째 출산의향이 아닌 이상자녀수 혹은 희망자녀수를 측정하였다. 많은 선행연구가 이런 데이터를 사용했음에도 출산의향 등의 표현을 사용하였다(Yang, 2017; 乔雅君, 2019; 魏炜, 2019). 이런 연구들은 많은 표본의 수의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적 여건이나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하는 자녀수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출산의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이후 둘째 출산의 합법화는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으므로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부부의 양육분담을 측정하는 방식은 시간과 같은 객관적 지표를 사용하거나 공평성, 만족도 등 주관적 지표를 사용하는 방식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객관적 지표로는 부부 각각이 실제 양육에 사용한 시간(Yang, 2017), 남편의 양육시간 비율(Hwang & Kim, 2021), 부부의 양육시간 비교 즉, 남편과 부인 중 누구의 양육시간이 더 긴지(Riederer et al., 2019) 등이 사용되었다. 주관적 지표로는 배우자가 지각한 양육분담의 공평성(Neyer et al., 2013), 부인이 느끼는 남편의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정은희, 최유석, 2013) 등을 측정하였다. 객관적 지표는 양육시간의 양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평성 등의 주관적 지표는 양육분담에 대한 기대나 성역할태도, 각 배우자의 경제적 기여도 등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부부의 양육분담이 둘째 출산의 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연구할 때 객관적인 지표와 주관적인 지표 모두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 3) 부부관계 적응과 둘째 출산의 향

자녀양육기의 부부는 부부관계 적응이라는 발달과업과 마주한다. 자녀가 태어나면 부부만이 공유하는 시간이 감소되고 성적 관계를 갖는 것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더욱이 부부가 자녀양육에 대해 서로 다른 기대와 가치관을 가지게 되면 자녀를 양육할 때 생기는 갈등으로 인해 부부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서미정, 2019; 정현숙, 유계숙, 2004). 반대로 자녀양육에 있어 부부가 과업의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의존하고 과정을 잘 겪어 내면, 부부간의 유대가 강화되고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한경혜 외, 2020). Belsky와

Rovine(1990)에서 첫째 자녀 출생 이후의 부부관계는 부부만족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부부유형, 서서히 감소하는 부부유형,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유형, 약간 높아진 유형의 4가지로 나타났다. 이렇듯 첫 자녀 출생 이후 부부관계의 양상은 다양할 수 있으며, 부부관계에 잘 적응하는 것이 둘째 출산의 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서구의 문헌에서는 부모전이기에 결혼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첫째 출산으로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본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Lawrence et al., 2007; McHale & Huston, 1985; Tomlinson, 1996). 그러나 부부가 자녀양육기에 직면하게 되는 부부관계에서의 급격한 변화에 잘 적응하면 결혼만족도가 유지 또는 향상될 수도 있다. 중국에서는 자녀를 부부 사랑의 열매로 보는 경우가 많다. 사랑의 열매를 얻음으로써 결혼의 행복감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부부관계의 질이 높은 부부들은 재출산할 가능성이 있다. 아들 한 명, 딸 한 명(儿女双全) 있는 것은 중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조합이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질이 높다면 이러한 조합을 완성하기 위해 둘째 출산의 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은 부부관계의 질이 출산의 향에 긍정적인 영향요인이라고 보고했다(고광만, 김소아, 2014; 김은경, 2014; 임현주, 이대균, 2013; 임현주 외, 2011; 정은희, 최유석, 2013; Rijken & Thomson, 2011; 刘茂竹, 杨建华, 2018). 또, 후속출산 계획이 있는 어머니는 출산계획이 없는 어머니의 비해 부부관계의 질이 더 높다는 결과도 있다(송영주 외, 2011).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감을 유지하기 위해 첫째 자녀를 출산한 후에 추가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Parr, 2010; 朱明宝, 杨云彦, 2017). 덩징야와 동료들(2018)은 한국의 결혼이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둘째 출산의 향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부부관계의 안정과 만족감은 중

국, 베트남 출신 여성의 후속출산의향에 중요한 요인이다.

부부관계의 질과 둘째 출산의향의 정적 관계는 선행연구에서 어느 정도 입증된 바가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기 부부관계의 ‘변화’에는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관계가 원래 부정적이었던 경우에 출산의향이 낮은 것인지 자녀가 생기면서 부부관계가 악화된 경우에 출산의향이 낮은 것인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부부관계가 자녀양육기 이전에도 좋았던 경우에 출산의향이 높은 것인지,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부관계에서 호전된 경우에 출산의향이 높은 것인지를 구분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응답 시점에서의 결혼만족도와 출산 후 부부관계 변화를 각각 고려하고자 한다.

## 제 3 장 연구방법

### 제 1 절 자료수집 및 연구참여자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한 명의 미취학 자녀가 있으며, 자녀 및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중국 거주 여성으로 선정하였다. 미취학 자녀로 한정한 이유는 첫 자녀 출생부터 첫 자녀 초등학교 입학까지 즉, 자녀양육기 단계에 둘째를 출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현재 자녀 및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부모역할 적응, 부부의 양육분담, 부부관계 적응을 살펴보기에 적절한 맥락이기 때문이었다.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으며 지역 간에 사회경제적 격차가 존재하기에 한곳으로 전국을 대표하기보다 많은 지역의 출산의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의 여성을 모집단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한 온라인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지도교수와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설문지를 개발하였고, 중국 출신 아동가족학 전공 대학원생 3명이 척도의 중국어 번역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설문지가 전체적으로 현재 중국의 상황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였다. 또한, 중국인 12명에게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를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평균적인 응답 소요시간도 파악하였다.

본조사는 중국의 대표적인 설문조사업체 웬젠흥(问卷星, [www.wjx.cn](http://www.wjx.cn))을 통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웬젠흥의 패널은 중국의 30여 개 행정지역에 거주하며 다양한 직업, 연령, 소득, 성별 등 배경을 가진 260여만 명의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인구비례와 유사하게 동, 중, 서부지역 거주자를 대략 5:4:3 비율로 할당표집하였다. 온라인조사 링크

첫 페이지에 연구참여자용 설명서 및 동의서를 제시하여 연구기관,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등에 대한 정보를 확인한 이후 ‘참여 동의’를 클릭한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조사는 2021년 2월 2일부터 3월 9일까지 약 5주 동안 총 332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응답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였다. 첫째, 응답자가 접속한 IP 주소에 해당하는 지역과 현 거주지가 동일한 응답을 사용하였다. 둘째, 동일한 응답자는 중복하여 설문지에 응답할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응답이 지나치게 빨리 완료되었거나 응답의 패턴이 동일한 경우 제외하였다. 넷째, 현 거주지역에 대한 응답과 현 거주 도시가 불일치할 경우 제외하였다. 회수된 응답 중 불성실하게 응답하였다고 판단된 17부를 제외한 총 315부를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모든 자료수집 절차는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미리 받은 이후 그 기준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승인번호: SNU IRB No. 2102/002-00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3-1>과 같다. 참여자인 기혼여성의 연령은 20대 142명(45.10%), 30대 164명(52.00%), 40대 9명(2.90%)으로 30 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평균 연령은 만 30.32세였다.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229명(72.70%)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중국 인구조사에 따르면, 25-44세의 인구가 4.5억 정도 되며, 이 중 대졸 이상인 인구는 약 9천만 명으로 20% 정도였다(中国国家统计局, 2021b).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는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율이 높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취업상태인 연구참여자가 283명(89.80%)으로 90%에 가까웠고, 그 중에서 221명(취업자의 78.09%)은 회사원이었다. 2019년 도시 취업인구 중에 회사를 다닌 인구비율이 대략 60.53%였는데(中国国家统计局, 2020), 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은 3,001-5,000위안이 86명

(27.20%)으로 가장 많았고, 5,001-7,000위안 82명(26.00%), 7,001-9,000위안 53명(16.80%), 9,000위안 이상 40명(12.70%), 1,001-3,000위안 22명(7.00%)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을 기준으로 중국에서 사기업 취업인구의 월 평균 급여는 4,810위안(中国国家统计局, 2021c)이었음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 참여한 기혼여성의 소득은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연구참여자 남편의 연령은 20대 90명(28.60%), 30대 207명(65.70%), 40대 18명(5.70%)으로 30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편의 평균 연령은 만 31.97세였다.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학교 졸업이 198명(62.90%)으로 가장 많았다.

남편은 모두 취업 상태였으며, 그 중 205명(65.10%)은 회사원이었다.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9,000위안 이상이 115명(36.50%)으로 가장 많았고, 7,001-9,000위안이 78명(24.80%), 5,001-7,000위안이 67명(21.30%), 3,001-5,000위안이 42명(13.30%), 1,001-3,000위안이 12명(3.80%), 1,000위안 이하가 1명(0.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본인과 마찬가지로 교육수준이 높은 편이었다.

자녀의 성별은 여아가 163명(51.70%), 남아가 152명(48.30%)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평균연령은 만 3.12세(범위: 1-7세)였다. 자녀 양육시 도와준 사람이 있는 경우는 224명(71.10%)이었고, 그중에서 도와준 사람이 참여자의 시부모인 경우가 136명(224명 중 60.7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국에서 초등학교 입학 전에 3년간 어린이집에 다닌 아동의 비율은 85.2%로 높지만, 3세 이하의 어린이집 재원율은 상당히 낮은 편이며(중국교육부, 2021), 취업모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녀의 양육을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거주지역은 동부지역 134명(42.50%), 중부지역 106명(33.70%), 서부지역 75명(23.80%)이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현 거주지역의 호적을 소지한 경우는 290명(92.10%)이었다.

〈표 3-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N* = 315)

변수	본인		남편 <i>n</i> (%)
		<i>n</i> (%)	
연령(세)	20대	142(45.10)	90(28.60)
	30대	164(52.00)	207(65.70)
	40대	9(2.90)	18(5.70)
	평균	30.32세	평균 31.97세
교육수준	중학교 졸업 및 이하	6(1.90)	15(4.80)
	고등학교 졸업	13(4.10)	16(5.10)
	전문대학(3년제) 졸업	46(14.60)	56(27.60)
	대학교 졸업	229(72.70)	198(62.90)
	대학원 졸업 이상	21(2.30)	30(9.50)
취업여부	취업	283(89.80)	315(100.00)
	미취업	32(10.20)	0(0.00)
직종	노동자	6(2.12)	21(6.70)
	농민	1(0.35)	1(0.30)
	공무원	24(8.48)	34(10.80)
	회사원	221(78.09)	205(65.10)
	자영업자	5(1.77)	24(7.60)
	기타	26(9.19)	27(8.60)
	1,000위안 이하	-	1(0.30)
월평균소득	1,001 - 3,000위안	22(7.00)	12(3.80)
	3,001 - 5,000위안	86(27.30)	42(13.30)
	5,001 - 7,000위안	82(26.00)	67(21.30)
	7,001 - 9,000위안	53(16.80)	78(24.80)
	9,000위안 이상	40(12.70)	115(36.50)
	남아		152(48.30)
자녀 성별	여아		163(51.70)
	평균 3.12세 (범위: 1-7세)		
자녀 연령(세)	양육조력자 유무	있다	224(71.10)
		없다	91(28.90)
양육조력자와의 관계	나의 시부모		136(43.20)
	나의 친정부모		78(24.80)
	지인 및 친척		4(1.30)
거주지역	가사도우미		6(1.90)
	동부지역		134(42.50)
	중부지역		106(33.70)
	서부지역		75(23.80)
거주지역의 호적 유무	있다		290(92.10)
	없다		25(7.90)

## 제 2 절 측정도구

### 1. 둘째 출산의향

둘째 출산의향은 ‘귀하는 앞으로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없다’(1점)부터 ‘매우 있다’(4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출산의향을 측정할 때 시간범위를 제시하는 것이 좋다는 선행연구(Billari et al., 2009; Philipov, 2009)에 따라 ‘3년 이내’라는 시간범위를 포함하여 질문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둘째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더 있음을 의미한다.

### 2. 부모역할 적응

#### 1) 양육효능감

양육효능감은 Gibaud-Wallston과 Wandersman(1978)이 개발하여, Johnston과 Mash(1989)가 수정한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POSC) 척도를 Nagi(2007)가 중국어로 번역하고 杨晓 等(2014) 수정한 중국어판의 양육효능감 척도(C-POSC)를 사용하였다. C-POSC 척도는 부모로서의 문제해결 기술과 능력에 대한 스스로의 인지 정도 및 효능감 8문항과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감 9문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로서의 효능감 8문항을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을 측정하는 질문으로는 ‘나는 엄마로서의 일을 잘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등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문항은 모두 6점 Likert 척도이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6점)까지 응

답하도록 하였다.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에 대한 효능감을 높은 수준으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8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양육효능감 8개 문항의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839로 나타났다.

## 2) 심리적 양육스트레스

심리적 양육스트레스는 김기현, 강희경(1997)이 개발한 한국형 양육스트레스 척도 중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 및 디스트레스’ 하위척도 11문항을 연구자가 중국어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의 내용은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등이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11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적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846으로 나타났다.

## 3) 경제적 양육스트레스

경제적 양육스트레스는 ‘자녀 양육비에 대해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전혀 받지 않는다’(1점)부터 ‘많이 받는다’(4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적 양육스트레스를 더 높은 수준으로 경험함을 의미한다.

## 3. 부부의 양육분담

### 1) 남편 양육시간 비율

남편과 부인 각각의 양육시간에 대해 ‘최근 30일 동안, 육아시간은 하

루 평균 몇 분입니까? (먹이기, 목욕하기, 옷 입히기, 같이 놀아주기, 재우기 등)’라는 문항을 사용하여,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분 단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남편의 양육시간 비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우선 남편과 부인 각각에 대해, 주중 5일과 주말 2일을 합하여 7로 나눈 하루 평균 양육시간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남편과 부인의 하루 평균 양육시간을 합산하여 분모로 하고, 남편의 하루 평균 양육시간을 분자로 한 후 100을 곱하여 남편의 양육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 2) 양육분담 공평성

양육분담 공평성은 ‘본인과 배우자의 양육분담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으로 ‘전혀 공평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공평하다’(4점)까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분담이 공평하다고 지각함을 의미한다.

## 4. 부부관계 적응

### 1) 결혼만족도

결혼만족도는 Schumm과 동료들 (1983)이 개발한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을 Shek과 동료들(1993)이 홍콩인을 대상으로 검증하고, 李虹과 陈启芳(2002)이 홍콩 및 베이징 거주자를 대상으로 재검증한 Chinese ver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등 3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매우 불만족’(1점)부터 ‘매우 만족’(7점)까지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3개 문항의 평균값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척도의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alpha$  값은 .910으로 나타났다.

## 2) 부부관계 변화

부부관계의 변화는 ‘자녀출산 이후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질문을 사용하여 ‘매우 나빠졌다’(1점)부터 ‘매우 좋아졌다’(5점)까지 응답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첫 자녀 출생 이후에 부부관계가 더 좋아졌음을 의미한다.

##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통제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소득, 남편의 교육수준, 소득, 첫 자녀 연령, 첫 자녀 성별, 양육조력자 유무이다. 이러한 통제변수는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선정하였다. 본인의 연령은 출생연도를 활용하여 만 연령을 계산한 값을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첫 자녀의 연령도 동일하게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본인 및 참여자 남편의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질문하고, 측정된 결과를 대졸 이상(대학교 졸업 및 대학원 졸업 이상)은 ‘1’로 대졸 미만(중학교 졸업 및 이하,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 졸업)은 ‘0’으로 코딩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인 및 남편의 소득은 월평균 소득을 ‘1,000위안 이하’(1), ‘1,001 - 3,000위안’(2), ‘3,001 - 5,000위안’(3), ‘5,001 - 7,000위안’(4), ‘7,001 - 9,000위안’(5), ‘9,000위안 이상’(6)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일하지 않은 사람은 0으로 코딩하여 0점부터 6점까지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첫 자녀 성별은 남아는 1로, 여아는 0으로 코딩하였다. 양육조력자 유무는 있는 경우 1, 없는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 제 3 절 분석방법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자녀양육기각 발달과업 수행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보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검증하였다. 독립변수는 부모역할 적응, 부부의 양육분담, 부부관계 적응이었고 종속변수는 둘째 자녀 출산의향이었다.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해 상관관계와 분산평창지수 VIF를 검토하였을 때 모두 3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제 4 장 연구결과

### 제 1 절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

주요 변수의 전반적 경향은 <표 4-1>과 같다. 둘째 출산의향은 둘째 출산의향은 ‘약간 있음’ 123명(39.00%), ‘별로 없음’ 106명(33.70%), ‘전혀 없음’ 69명(21.90%), ‘매우 있음’ 17명(5.40%)의 순이었다. 둘째 출산의향이 있는 경우가 44.4%, 없는 경우가 55.6%였으며, 둘째 출산의향(범위 1-4점)의 평균은 2.28점(표준편차 .87)으로 중간보다 낮았다.

부모역할 적응 측면에서 양육효능감(범위 1-6점)은 평균 4.39점(표준편차 .78)으로 중간값 3.50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심리적 양육스트레스(범위 1-5점)는 평균 2.87점(표준편차 .80)으로 약간 낮게 나타났다. 경제적 양육스트레스는 ‘약간 받음’ 186명(59.05%), ‘많이 받음’ 85명(26.98%), ‘별로 받지 않음’ 37명(11.75%), ‘전혀 받지 않음’ 7명(2.22%)의 순이었다. 경제적 양육스트레스(범위 1-4점)의 평균은 3.11점(표준편차 .68)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양육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응답이 86.03%에 달했다.

부부의 양육분담 측면에서 남편의 하루 평균 양육시간은 주중 1.89시간(표준편차 2.04), 주말 4.33시간(표준편차 4.21)이었다. 주중 5일과 주말 2일을 합하여 7로 나눈 하루 평균 양육시간은 2.57시간(표준편차 2.39)이었다. 부인의 하루 평균 양육시간은 주중 3.94시간(표준편차 3.51), 주말 7.82시간(표준편차 5.51)이었다. 주중 5일과 주말 2일을 합하여 7로 나눈 하루 평균 양육시간은 5.05시간(표준편차 3.68)이었다. 부부의 총 양육시간 중 남편의 양육시간은 평균 33.24%표준편차 14.49)를 차지하였다.

양육분담 공평성은 ‘약간 공평함’ 161명(51.10%), ‘별로 공평하지 않음’

87명(27.60%), ‘전혀 공평하지 않음’ 43명(13.70%), ‘매우 공평함’ 24명(7.60%)의 순이었다. 공평하지 않다는 응답이 공평하다는 응답보다 많았으며, 양육분담 공평성(범위 1-4점)의 평균은 2.53점(표준편차 .82)으로 중간값 2.50점과 유사하였다.

부부관계 적응 측면에서 결혼만족도(범위 1-7점)는 평균 5.05점(표준편차 1.29)으로 높은 편이었다. 첫 자녀 출생 후 부부관계의 변화는 ‘약간 나빠졌음’ 85명(27.00%), ‘변화 없음’ 84명(26.70%), ‘약간 좋아졌음’ 77명(24.40%), ‘매우 좋아졌음’ 60명(19.00%), ‘매우 나빠졌음’ 9명(2.90%)의 순이었다. 첫 자녀 출생 후 부부관계의 변화(범위 1-5점)의 평균은 3.39점(표준편차 1.14)으로 중간값 2.50점보다 높았으며, 부모가 된 이후 부부관계가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표 4-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변수	문항수	점수범위	$M(SD)$
둘째 출산의 향	1	1-4	2.28(0.87)
응답범주			$n(%)$
- 전혀 없음			69(21.90)
- 별로 없음			106(33.70)
- 약간 있음			123(39.00)
- 매우 있음			17(5.40)
부모역할 적응	문항수	점수범위	$M(SD)$
양육효능감	8	1-6	4.39(0.78)
심리적 양육스트레스	11	1-5	2.87(0.80)
경제적 양육스트레스	1	1-4	3.11(0.68)
응답범주			$n(%)$
- 전혀 받지 않음			7(2.20)
- 별로 받지 않음			37(11.70)
- 약간 받음			186(59.00)
- 많이 받음			85(27.00)
부부의 양육분담	문항수	점수범위	$M(SD)$
남편 양육시간(주중)	1	0-24	1.89(2.04)
남편 양육시간(주말)	1	0-24	4.33(4.21)
남편 양육시간(평균 <sup>1)</sup> )	2	0-24	2.57(2.39)
부인 양육시간(주중)	1	0-24	3.94(3.51)
부인 양육시간(주말)	1	0-24	7.82(5.51)
부인 양육시간(평균 <sup>1)</sup> )	2	0-24	5.05(3.68)
남편의 양육시간 비율 <sup>2)</sup>	-	1-100	33.24(14.49)
양육분담 공평성	1	1-4	2.53(0.82)
응답범주			$n(%)$
- 전혀 공평하지 않음			43(13.70)
- 별로 공평하지 않음			87(27.60)
- 약간 공평함			161(51.10)
- 매우 공평함			24(7.60)
부부관계 적응	문항수	점수범위	$M(SD)$
결혼만족도	3	1-7	5.05(1.29)
부부관계 변화	1	1-5	3.39(1.14)
응답범주			$n(%)$
- 매우 나빠졌음			9(2.90)
- 약간 나빠졌음			85(27.00)
- 변화 없음			84(26.70)
- 약간 좋아졌음			77(24.40)
- 매우 좋아졌음			60(19.00)

<sup>1)</sup> {(주중 × 5) + (주말 × 2)} ÷ 7    <sup>2)</sup> {남편의 평균 양육시간 ÷ (남편의 평균 양육시간 + 부인의 평균 양육시간)} × 100

주요 변수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2>에 제시하였다. 모든 변수 간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 $N = 315$ )

변수	1.	2.	3.	4.	5.	6.	7.	8.
1. 양육효능감	—							
2. 심리적 양육스트레스	-.56***	—						
3. 경제적 양육스트레스	-.29***	.39***	—					
4. 남편의 양육시간 비율	.13*	-.18**	-.24***	—				
5. 양육분담 공평성	.28***	-.33***	-.36***	.62***	—			
6. 결혼만족도	.42***	-.41***	-.36***	.46***	.62***	—		
7. 부부관계 변화	.42***	-.44***	-.30***	.31***	.48***	.62***	—	
8. 둘째 출산의향	.31***	-.32***	-.39***	.34***	.46***	.47***	.46***	—

\* $p < .05$ . \*\* $p < .01$ . \*\*\* $p < .001$ .

## 제 2 절 중국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발달과업 수행이 둘째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3>과 같다.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둘째 출산의향의 분산을 32.20% 설명하였다.

독립변수 중에서는 부모역할 적응 중 경제적 양육스트레스( $\beta = -.202$ ,  $p < .001$ ), 부부의 양육분담 중 양육분담 공평성( $\beta = .163$ ,  $p < .05$ ), 부부관계 적응 중 첫 자녀 출생 후 부부관계 변화( $\beta = .188$ ,  $p < .01$ )가 둘째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적 양

육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양육분담이 공평하다고 지각할수록, 첫째 출생 이후 부부관계가 좋아졌을수록 앞으로 둘째 출산의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 심리적 양육스트레스, 남편의 양육시간, 결혼만족도는 둘째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에 투입된 통제변수 중에서도 둘째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수는 없었다.

〈표 4-3〉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N = 315$ )

변수	<i>B</i>	<i>SE</i>	$\beta$
부모역할 적응			
양육효능감	0.075	0.066	.068
심리적 양육스트레스	-0.029	0.066	-.027
경제적 양육스트레스	-0.256	0.068	-.202***
부부의 양육분담			
남편 양육시간 비율	0.005	0.004	.084
양육분담 공평성	0.171	0.074	.163*
부부관계 적응			
결혼만족도	0.068	0.049	.101
부부관계 변화	0.143	0.047	.188**
통제변수			
본인 연령	-0.018	0.012	-.082
본인 교육수준(1 = 대졸 이상)	-0.110	0.132	-.051
본인 소득	-0.030	0.033	-.056
남편 교육수준(1 = 대졸 이상)	0.028	0.123	.014
남편 소득	0.032	0.041	.045
첫 자녀 연령	0.035	0.028	.068
첫 자녀 성별(1 = 남)	-0.023	0.083	-.013
양육조력자 유무	-0.010	0.096	-.005
상수		1.893	
Adjusted <i>R</i> <sup>2</sup>		.322***	

\* $p < .05$ . \*\* $p < .01$ . \*\*\* $p < .001$ .

## 제 5 장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가족발달이론의 발달과업을 기반으로 자녀양육기의 발달과업인 부모역할 적응(양육효능감, 심리적 양육스트레스, 경제적 양육스트레스), 부부의 양육분담(남편의 양육시간 비율, 양육분담 공평성), 부부관계 적응(결혼만족도, 출산 후 부부관계 변화)이 중국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었다. 연구참여자는 한 명의 미취학 자녀가 있고 남편 및 자녀와 같이 거주하는 중국 기혼여성 315명이었다. 이들의 둘째 자녀 출산의향은 약간 있는 경우가 39%로 가장 높은 비율이었지만, 별로 없는 경우도 약 34%로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전혀 없는 경우도 약 22%를 차지하였다. 반면 둘째 출산의향이 매우 강한 경우는 약 5%에 불과했다. 이러한 둘째 자녀 출산의향을 종속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인 부모역할 적응이 중국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경제적 양육스트레스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에 드는 비용이 저출산의 맥락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으며, 출산의향과 관련하여 경제적인 측면을 많이 다룬 연구가 많다. 王广州, 张丽萍(2017)의 연구에서 경제적인 스트레스는 둘째 출산의향에 결정적인 영향요인이었고, 첫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둘째 자녀를 낳고 싶지 않은 원인 중 경제적인 제약을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王蓓(2018)의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경제적인 부담이 둘째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강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고학력, 중산층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높은 본 연구에서도 경제적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약 86%였고, 부인과 남편의 소득을 통제한 이후에도 주관적 경제적 양육스트레스가 둘째

출산의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에서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녀양육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적 여건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있으며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인식하는 것이 둘째 출산의향을 약하게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 대도시 지역의 높은 주택비나 생활비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며, 이로 인해 한 자녀 정책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기의 대표적인 발달과업인 심리적 측면의 부모역할 적응, 즉 양육효능감과 심리적 양육스트레스가 중국 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여성의 경우 부모역할에 잘 적응한다고 해서 둘째 자녀를 갖고자 하는 의향이 형성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양육효능감(김미나, 이소은, 2018; 송영주 외, 2011; 이진화, 민정원, 2015; 임효진 외, 2015)과 양육스트레스(임효진 외, 2015; 하민경, 2020; 현정환, 2019)가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 한국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대다수가 취업여성(89.80%)으로 양육조력자가 있었기에(71.10%), 양육효능감이나 양육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측면이 둘째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연구문제인 부부의 양육분담이 중국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실제 양육시간이 아닌 지각한 양육분담의 공평성만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즉, 양육분담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반영하는 공평성이 남편의 실제 양육시간 비율을 통제한 이후에도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유럽에서 양육 및 가사분담 비율이 공평할수록 둘째 출산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Aassve et al., 2015; McDonald, 2000) 및 여성의 지각하는 성역할 불평

등이 출산의향을 감소시킨다는 결과(Riederer et al., 2019; Torr & Short, 2004)와 유사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에 비해 성평등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양육분담이 공평하다고 지각한 비율이 58.7%인 것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 하지만 중국에서도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불평등한 역할분담이 여전히 존재한다(郭戈, 2019; 李静雅, 2017). 한국의 '독박육아' 등 성평등 이슈와 유사하게 중국에는 '喪偶式育儿'라는 신조어가 있다. 여성들이 자녀양육 과정에서 젠더 불평등을 여전히 느끼는 현재, 본 연구의 결과와 같이 출산의 당사자인 여성들은 첫째 자녀양육에서 분담이 공평하다고 지각할 때 둘째 출산의향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저출산과 관련해서 젠더 불평등 문제는 직장에서의 불공평한 대우에 대한 논의(兰庆庆 等, 2019 ; 黃桂霞 等, 2017)에 집중되어 있을 뿐, 양육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불공평한 상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 육아분담의 공평성이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의 저출산을 이해함에 있어 가정에서의 불평등이 중요한 이슈임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세 번째 연구문제인 부부관계 적응이 중국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결혼만족도가 아닌 첫째 자녀 출산 후 부부관계의 변화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첫째 출산 이후 부부관계가 좋아진 경우는 43.40%, 변화가 없는 경우가 26.70%, 나빠진 경우가 29.90%로 나타났다.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는 부부만의 시간이 감소하여 부부관계의 질이 저하될 수 있지만, 자녀양육에 있어 부부는 과업의 파트너로서 서로에게 의존하는 과정을 겪으며 자녀 양육이 부부간의 유대를 강화시키고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한경혜 외, 2020). 중국에서는 자녀는 부부의 사랑의 결실이라는 말이

있는데, 즉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자녀는 부모의 행복감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첫째 출산 후 부부관계가 향상된 경우, 재출산할 때 부부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적기 때문에 재출산할 가능성이 높다.

다수의 선행연구는 긍정적인 부부관계가 둘째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고광만, 김소아, 2014; 김은경, 2014; 임현주, 이대균, 2013; 임현주 외, 2011; 정은희, 최유석, 2013; Rijken & Thomson, 2011; 刘茂竹, 杨建华, 2018). 그러나 첫 자녀 출산 이후 자녀양육을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가 둘째 출산에 미치는 영향까지는 다루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부모됨 이후 부부관계의 변화가 둘째 출산의 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둘째 출산의 향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에 통제변수로 투입한 본인 및 남편의 사회인구학적인 요인, 첫 자녀 특성, 양육조력자 유무는 둘째 출산의 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의 연령이나 교육, 소득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보다 부부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양육스트레스, 양육분담 공평성, 첫 자녀 출생 이후 부부관계의 변화가 둘째 출산의 향에 더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 중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자녀교육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 보육수당 지급, 주거비 부담 경감 등 경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경제적인 접근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중국의 저출산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양육스트레스가 중국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 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지속,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비용, 자녀 교육비용 등으로 인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중국 국무원(國務院)에서 “중국 의무교육 단계의 학업 부담 및 방과후 사교육 부담 경감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이는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최예지, 2021).

둘째, 부부의 양육분담 공평성이 중국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성평등한 양육분담을 장려하고 여성이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중국의 저출산 정책에서 젠더 이슈는 별로 논의되지 않고 있는데, 중국에서 자녀양육기 중국 여성들은 대부분 경제활동에 종사하므로 정책적으로 ‘함께 벌고 함께 돌보는’ 모델을 향후 출산정책의 방향으로 제안한다. 예를 들어,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 및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남편이 양육에 더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첫째 출산 후 부부관계의 긍정적 변화가 중국 자녀양육기 기혼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으로 이어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첫째 출산 이후 부부관계와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제안한다. 미국 등에서는 부모전이기 부부관계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커플관계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부관계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커플상담도 활성화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가족센터를 통해서 공적 영역에서 부부 및 커플 관계와 관련된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중국의 문화와 실정에 맞는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도 저출산 현상의 효

과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설문조사 응답자로 여성만이 포함되었다. 출산은 가족 안에서 부부가 함께 결정하는 사안이므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출산의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여성의 출산의향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또한 배우자 간 출산의향의 불일치 현상이 존재하므로(Thomson, 1997), 커플 내 출산의향의 차이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지역을 포함했지만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 중국은 사회현상에서 지역격차가 큰 경향이 있으므로, 지역별로 여성의 출산의향과 영향요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거주지역을 변수화하거나 거주지역의 출산 및 정책 관련 정보를 분석에 투입하여 다층분석 등의 방법으로 거주지역과 출산의향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참여자의 교육 및 소득 수준이 높은 편이며 회사원의 비율도 높아서 전반적으로 도시 지역 중산층 이상 응답자의 비율이 높다는 제한점이 있다. 웬젠퉁 온라인 설문조사는 중국에서 대표적인 리서치업체로 다양한 지역에 거주하는 방대한 조사패널을 확보하고 있지만, 소득 및 교육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에서도 사무직의 비율이 높은 편이지만, 직종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삶의 패턴이 다양하므로 출산의향과 관련해서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소득수준, 교육수준, 직종을 배경으로 하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중국 기혼여성의 자녀양육기 발달과업 수준이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직접효과만 분석하였고, 간접효과나 조절효과를

살펴보지 못했다. 그러나 교육수준이 높은 대만 여성은 남편과 양육 및 가사분담을 더 많이 분담하고, 남편의 양육분담 수준이 높을수록 둘째 출산의향이 높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heng & Hsu, 2020) 등을 토대로 볼 때, 향후 연구에서는 매개요인이나 조절요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출산의향과 실제 출산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출산행동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2016년부터 둘째 혜용정책을 시작한지 6년이 경과했으므로 실제로 둘째를 출산한 부부와 그렇지 않은 부부의 출산여부와 출산시기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출산여부와 출산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본 연구는 가족발달이론을 적용하여 자녀양육기 발달과업 이행이 둘째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녀양육기 발달과업인 부모역할 적응, 부부의 양육분담, 부부의 역할적응 중 특정 측면은 중국 기혼 여성의 둘째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으로써 둘째 출산의향 연구에서 가족발달이론의 발달과업 개념의 유용성을 초동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정책적 제언이 실제 중국의 출산 정책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  
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18(4), 639-653.
- 고광만, 김소아(2014). 사회적 지원, 일-가족 양립 정책 및 부부특성이 후  
속출산의도 및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경로탐색. *한국가족관계학회  
지*, 18(4), 35-51.
- 고선강(2019). 가족친화제도와 조직문화가 여성관리자의 출산의향에 미치  
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353-367.
- 공세권, 박인화, 조애, 김진숙, 장현섭(1987). *한국 가족구조의 변화-가족  
생활주기 조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인구보건연구원.
- 기쁘다, 성미애, 이재림(2020). *가족생활교육*.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  
판문화원.
- 김기원, 도현심, 김상원, 이선희(2010). 어머니의 취업 여부, 취업 관련 특  
성, 배우자의 지지 및 양육스트레스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31(5),  
101-113.
- 김기현, 강희경(1997). 양육스트레스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5(5),  
141-150.
- 김미나, 이소은(2018). 보육서비스 만족도와 양육효능감이 후속출산의도  
에 미치는 영향: 36 개월 이하 한 자녀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교  
육·보육복지연구*, 22(3), 123-144.
- <http://doi.org/10.22590/ecee.2018.22.3.123>
- 김양희(2000). *가족관계학*. 서울: 수학사.
- 김은경(2014). 부부관계특성이 둘째아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한  
국가족관계학회지*, 18(4), 199-217.
- 김일옥, 왕희정, 정구철, 최소영(2011). 출산장려 정책과 균로시간이 기혼

- 여성의 둘째 아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4(3), 139-155.
- 김일옥, 정구철(2015). 결혼 인식도, 첫째 자녀 연령, 공동 양육 및 가사 노동이 둘째아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0(3), 5-23. <http://doi.org/10.16978/ecec.2015.10.3.001>
- 김정석(2007). 기혼여성의 출산아수별 추가출산계획. *한국인구학*, 30(2), 97-116.
- 김주희, 고선강(2015). 신혼기 기혼여성과 부모 간의 자원이전과 출산의 향.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9(2), 27-49.
- 딩징야, 진미정, 옥선희(2018). 중국, 베트남 결혼이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영향요인: 2009년,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비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3(2), 133-155.  
<http://dx.doi.org/10.21321/jfr.23.2.133>
- 서미정(2019). 영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의 결혼만족도 이중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유아교육학논집*, 23(5), 275-297.  
<http://doi.org/10.32349/ECERR.2019.10.23.5.275>
- 송영주, 이주옥, 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6(3), 185-206.
- 송유미, 이선자(2016). Q 방법을 활용한 취업모의 둘째아 출산기피 요인의 유형화: 대구.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2), 714-728. <https://doi.org/10.5392/JKCA.2016.16.02.714>
- 우해봉, 장인수(2017). 출산에 대한 개인 특성과 부부 특성의 영향. *한국 인구학*, 40(3), 79-105.
- 유영주(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111-129.
- 이진화, 민정원(2015). 어머니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가정환경자극 수준

- 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영향. *생태유아교육연구*, 14(1), 79-100.
- 임현주, 이대균(2013). 부부특성 및 사회적 지원과 어머니의 심리적 특성  
이) 후속출산에 미치는 효과: 모의 취업과 후속출산계획 여부에 따른 다중집단분석. *유아교육연구*, 33(2), 121-144.  
<http://doi.org/10.18023/kjece.2013.33.2.006>
- 임현주, 이대균, 최항준(2011). 친지의 사회적 지원, 부모특성, 어머니 심리적 특성이 후속출산계획에 미치는 변인탐색. *유아교육연구*, 31(6), 167-190. <http://doi.org/10.18023/kjece.2011.31.6.008>
- 임효진, 박휴용, 장경은, 이지은(2015). 어머니의 심리적, 관계적 변인과 양육스트레스, 후속 출산의도의 구조적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20(2), 297-318.
- 정은희, 최유석(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 정현숙, 유계숙(2004). *가족관계*. 서울: 신정
- 정혜은, 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아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31(1), 151-168.
- 최미란, 장경은(2017). 영아기 첫 자녀를 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와 후속 출산의도의 관계: 직업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4), 53-73. <https://doi.org/10.14698/jkcce.2017.13.04.053>
- 최예지/아주경제(2021, 07, 25). 중국, 이번엔 사교육 시장에 칼 빼들었다.  
<https://www.ajunews.com/view/20210725130737196>
- 최지훈, 안선희(2018). 가족친화제도와 남편의 자녀돌봄 참여가 기혼여성의 추가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6(1), 75-85.  
<http://dx.doi.org/10.7466/JKHMA.2018.36.1.75>
- 하민경(2020). 어머니가 인식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아버지 양육참여가 후속출산계획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3),

1139-1155. <http://doi.org/10.22251/jlcci.2020.20.3.1139>

한경혜, 성미애, 진미정, 기쁘다(2020). **가족발달**.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교출판문화원.

현정환(2019).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의 비모성적 양육관이 후속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118, 101-122.

Aassve, A., Fuochi, G., Mencarini, L., & Mendola, D. (2015). What is your couple type? Gender ideology, housework-sharing, and babies. *Demographic Research*, 32(30), 835-858.

<http://dx.doi.org/10.4054/DemRes.2015.32.30>

Abidin, R. R. (1992).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behavior.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1(4), 407-412.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2104_12)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https://doi.org/10.1016/0749-5978(91)90020-T)

Balbo, N., Billari, F. C., & Mills, M. (2013). Fertility in advanced societies: A review of research.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9(1), 1-38. <https://doi.org/10.1007/s10680-012-9277-y>

Balbo, N., & Mills, M. (2011).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and social pressure on the intention to have a second or third child in France, Germany, and Bulgaria, 2004-05. *Population Studies*, 65(3), 335-351. <https://doi.org/10.1080/00324728.2011.579148>

Bao, L., Chen, F., & Zheng, Z. (2017). Transition in second birth intention in a low fertility context: The case of Jiangsu, China. *Asian Population Studies*, 13(2), 198-222.

<https://doi.org/10.1080/17441730.2017.1291125>

- Becker, G. S., & Lewis, H. G.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art 2), S279-S288. <https://doi.org/10.1086/260166>
- Belsky, J., & Rovine, M. (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1), 5-19. <https://psycnet.apa.org/doi/10.2307/352833>
- Bianchi, S. M., Milkie, M. A., Sayer, L. C., & Robinson, J. P. (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1), 191-22. <https://doi.org/10.2307/2675569>
- Billari, F. C., Philipov, D., & Testa, M. (2009). Attitudes, norms and perceived behavioural control: Explaining fertility intentions in Bulgaria.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4), 439-465. <https://doi.org/10.1007/s10680-009-9187-9>
- Bühler, C., & Fratczak, E. (2007). Learning from others and receiving support: The impact of personal networks on fertility intentions in Poland. *European Societies*, 9(3), 359-382. <https://doi.org/10.1080/14616690701314101>
- Bühler, C., & Philipov, D. (2005). Social capital related to fertility: Theoretic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from Bulgaria. *Vienna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2005(4), 53-81.
- Butz, W. P., & Ward, M. P. (1979). The emergence of countercyclical US fertil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69(3), 318-328.
- Cheng, Y. H. A., & Hsu, C. H. (2020). No more babies without help for whom? education, division of labor, and fertility inten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2(4), 1270-1285.

<https://doi.org/10.1111/jomf.12672>

Coleman, P. K., & Karraker, K. H. (2003). Maternal self-efficacy beliefs, competence in parenting, and toddlers' behavior and developmental statu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Official Publication of The World Association for Infant Mental Health*, 24(2), 126-148. <https://doi.org/10.1002/imhj.10048>

Coltrane, S. (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4), 1208-1233.

<https://doi.org/10.1111/j.1741-3737.2000.01208.x>

Cooke, L. P. (2009). Gender equity and fertility in Italy and Spain. *Journal of Social Policy*, 38(1), 123-140.

<https://doi.org/10.1017/S0047279408002584>

Duvall, E. M.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Philadelphia : Lippincott.

Gibaud-Wallston, J., & Wandersman, L. P. (1978, August).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Hastings, R. P., & Brown, T. (2002).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with autism, parental self-efficacy, and mental health.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107(3), 222-232.

[https://doi.org/10.1352/0895-8017\(2002\)107%3C0222:BPOCWA%3E2.0.CO;2](https://doi.org/10.1352/0895-8017(2002)107%3C0222:BPOCWA%3E2.0.CO;2)

Hwang, W., & Kim, S. (2021). Husbands' childcare time and wives'

second-birth intentions among dual-income couples: The mediating effects of work-family conflict and parenting stress. *Journal of Social Service Research*, 1-10.

<https://doi.org/10.1080/01488376.2021.1936746>

Jefferies, J., Berrington, A., & Diamond, I. (2000). Childbearing following marital dissolution in Britai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16(3), 193-210.

<https://doi.org/10.1023/A:1026529300659>

Johnston, C., & Mash, E. J. (1989). A measure of parenting satisfaction and efficacy.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2), 167-175.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802\\_8](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1802_8)

Kan, M. Y., & Hertog, E. (2017). Domestic division of labour and fertility preference in China,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Demographic Research*, 36(18), 557-588.

<http://doi.org/10.4054/DemRes.2017.36.18>

Kan, M. Y., Hertog, E., & Kolpashnikova, K. (2019). Housework share and fertility preference in four East Asian countries in 2006 and 2012. *Demographic Research*, 41(35), 1021-1046.

<https://doi.org/10.4054/DemRes.2019.41.35>

Kreyenfeld, M. (2002). Time-squeeze, partner effect or self-selection? An investigation into the positive effect of women's education on second birth risks in West Germany. *Demographic Research*, 7(2), 15-48. <https://doi.org/10.4054/DemRes.2002.7.2>

Lawrence, E., Nylen, K., & Cobb, R. J. (2007). Prenatal expectations and marital satisfaction over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1(2), 155-164.

<https://psycnet.apa.org/doi/10.1037/0893-3200.21.2.155>

Lee, R., & Mason, A. (2010). Fertility, human capital, and economic growth over the demographic transition.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26(2), 159–182.

<http://doi.org/10.1007/s10680-009-9186-x>

Leibenstein, H. (1974). An interpret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Promising path or blind alle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2(2), 457–479.

Li, Y., & Jiang, Q. (2019). Women's gender role attitudes and fertility intentions of having a second child: Survey findings from Shaanxi Province of China. *Asian Population Studies*, 15(1), 66–86.

<https://doi.org/10.1080/17441730.2019.1571740>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0.00427.x>

McHale, S. M., & Huston, T. L. (1985). The effect of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on the marriage relationship: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Family Issues*, 6(4), 409–433.

<http://doi.org/10.1177/019251385006004002>

Neyer, G., Lappégaard, T., & Vignoli, D. (2013).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Which equality matter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Revue Européenne de Démographie*, 29(3), 245–272.

<http://doi.org/10.1007/s10680-013-9292-7>

Ngai, F. W., Chan, S. W. C., & Holroyd, E. (2007). Translation and validation of a Chinese version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in Chinese mothers. *Nursing Research*, 56(5),

348–354. <http://doi.org/10.1097/01.NNR.0000289499.99542.94>

Oláh, L. S. (2003). Gendering fertility: Second births in Sweden and Hungar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2), 171–200.

Parr, N. (2010). Satisfaction with life as an antecedent of fertility: Partner + Happiness = Children? *Demographic Research*, 22(21), 635–662. <http://doi.org/10.4054/DemRes.2010.22.21>

Philipov, D. (2009). Fertility intentions and outcomes: The role of policies to close the gap.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5(4), 355–361. <https://doi.org/10.1007/s10680-009-9202-1>

Philipov, D., Spéder, Z., & Billari, F. C. (2006). Soon, later, or ever? The impact of anomie and social capital on fertility intentions in Bulgaria (2002) and Hungary (2001). *Population Studies*, 60(3), 289–308. <https://doi.org/10.1080/00324720600896080>

Richter, K., Podhisita, C., Chamratrithirong, A., & Soonthorndhada, K. (1994). The impact of child care on fertility in urban Thailand. *Demography*, 31(4), 651–662.

Riederer, B., Buber-Ennser, I., & Brzozowska, Z. (2019). Fertility Intentions and Their Realization in Couples: How the Division of Household Chores Matters. *Journal of Family Issues*, 40(13), 1860–1882. <https://doi.org/10.1177%2F0192513X19848794>

Rijken, A. J., & Thomson, E. (2011). Partners'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bearing. *Social Science Research*, 40(2), 485–497. <https://doi.org/10.1016/j.ssresearch.2010.10.001>

Schoen, R., Astone, N. M., Kim, Y. J., Nathanson, C. A., & Fields, J. M. (1999). Do fertility intentions affect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3), 790–799.

<https://doi.org/10.2307/353578>

Schumm, W. R., Nichols, C. W., Schectman, K. L., & Grigsby, C. C. (1983). Characteristics of responses to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by a sample of 84 married mothers. *Psychological Reports*, 53(2), 567-572.

<https://doi.org/10.2466%2Fpr0.1983.53.2.567>

Shek, D. T., Lam, M. C., Tsoi, K. W., & Lam, C. M. (1993). Psychometric properties of the Chinese version of the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Social Behavior and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21(3), 241-249.

<https://doi.org/10.2224/sbp.1993.21.3.241>

Sobotka, T., Skirbekk, V., & Philipov, D. (2011). Economic recession and fertility in the 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7(2), 267-306.

<https://doi.org/10.1111/j.1728-4457.2011.00411.x>

Thomson, E. (1997). Couple childbearing desires, intentions, and births. *Demography*, 34(3), 343-354. <https://doi.org/10.2307/3038288>

Tomlinson, P. S. (1996). Marital relationship change in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A reexamination as interpreted through transition theory. *Journal of Family Nursing*, 2(3), 286-305.

<https://doi.org/10.1177%2F107484079600200305>

Torr, B. M., & Short, S. E. (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https://doi.org/10.1111/j.1728-4457.2004.00005.x>

Wang, T., Wang, C., Zhou, Y., Zhou, W., & Luo, Y. (2019). Fertility

intentions for a second child among urban working women with one child in Hunan Province, China: A cross-sectional study. *Public Health*, 173(2019), 21-28.

<https://doi.org/10.1016/j.puhe.2019.05.006>

Westoff, C. F., & Ryder, N. B. (1977). The predictive validity of reproductive intentions. *Demography*, 14(4), 431-453.

<https://doi.org/10.2307/2060589>

Willis, R. J. (1973). A new approach to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behavio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art 2), S14-S64.

Yang, J. (2017). Gendered division of domestic work and willingness to have more children in China. *Demographic Research*, 37(62), 1949-1974. <http://doi.org/10.4054/DemRes.2017.37.62>

Yang, P. Q. (1993). The differential effects of husbands' and wives' statuses on marital fertility. *Population and Environment*, 15(1), 43-58. <https://doi.org/10.1007/bf02207997>

安建芸, 杨红, 董银, 张倩, 张彤(2017). 兰州市安宁区居民二胎生育意愿及影响因素分析. *农村经济与科技*, 28(1), 226-229.

<https://doi.org/10.3969/j.issn.1007-7103.2017.01.099>

白鸽, 王胜难, 戴瑞明, 罗力(2019). 全面二孩政策下云南省大理州某县居民生育意愿调查. *医学与社会*, 32(3), 10-13.

曹艳春(2017). 全面二孩政策背景下从生育意愿到生育行为: 基于 SSM 的影响因素及激励机制分析. *兰州学刊*, 17(02), 166-177.

<https://doi.org/10.3969/j.issn.1005-3492.2017.02.019>

陈秀红(2017). 影响城市女性二孩生育意愿的社会福利因素之考察. *妇女研究论丛*, 17(1), 30-39.

但文月(2020). 中国城镇已婚女性就业现状. *合作经济与科技*, 08, 116-117.

<https://doi.org/10.3969/j.issn.1672-190X.2020.08.047>

郭戈(2019). “丧偶式育儿”话语中的母职困境与性别焦虑. *北京社会科学*, 10,

117-128. <https://doi.org/10.13262/j.bjsshkxy.bjshkx.191012>

贺丹, 张许颖, 庄亚儿, 王志理, 杨胜慧, & 姜玉等. (2018). 2006-2016年中国生育状况报告—基于2017年全国生育状况抽样调查数据分析. *人口研究*, 42(6), 35-45.

黄桂霞, 姜大伟, 刘中华(2017). 挑战与应对:“全面二孩”政策下的女性就业权保障. *中国劳动关系学院学报*, 31(5), 35-43.

贾志科, 罗志华(2018). 我国生育意愿研究述评与展望 (1982-2016 年). *河北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43(1), 152-160.

<https://doi.org/10.3969/j.issn.1005-6378.2018.01.022>

兰庆庆, 李志, 陈侨予(2019). “全面二孩”政策下女性平等就业的现状分析, 影响因素与提升策略--基于重庆市的实证调查. *兰州学刊*, 305(02), 117-131. <http://doi.org/10.3969/j.issn.1005-3492.2019.02.011>

劳雅红, 祝志娟, 赵叶芳, 林建潮(2018). “全面二孩”政策下绍兴地区育龄妇女生育意愿及影响因素分析. *中国医院统计*, 25(3), 192-194.

<http://doi.org/10.3969/j.issn.1006-5253.2018.03.010>

李虹, 陈启芳(2002). Kansas 婚姻满意感量表的北京和香港常模. *心理发展与教育*, 18(4), 82-85. <http://doi.org/10.3969/j.issn.1001-4918.2002.04.017>

李静雅(2017). 已育一孩职业女性的二孩生育压力研究—基于心理学压力源理论模式的分析. *妇女研究论丛*, 33(03), 27-39.

<http://doi.org/10.3969/j.issn.1004-1613.2018.03.004>

李甜甜, 王娟娟, 顾吉有, 徐鹤文(2020). 有无二胎与父母教养能力感的关系: 头胎子女亲子依恋的调节作用. *心理发展与教育*, 36(5), 563-568.

<http://doi.org/10.16187/j.cnki.issn1001-4918.2020.05.07>

刘茂竹, 杨建华(2018). 二孩政策下夫妻再生育意愿与婚姻质量的相关性研究

- 一以成都市为例. *中国性科学*, 27(4), 157-160.  
<http://doi.org/10.3969/j.issn.1672-1993.2018.04.048>
- 刘妮英(2017). 武汉市 5-9 岁独生子女家庭二孩生育意愿现状调查. *医学与社会*, 30(5), 45-47. <http://doi.org/10.13723/j.yxysh.2017.05.015>
- 乔雅君(2019). 职业育龄群体二孩生育意愿及影响因素研究—基于 CGSS 2015 数据的分析. *经济研究参考*, 17, 108-116.
- 孙婧琦(2019). 生命周期视角下女性生育困境与对策研究. *黑龙江社会科学*, 1, 100-106.
- 王蓓(2018). 全面“二孩”政策下女职工的生育意愿和法律保障实证研究. *东方法学*, 18(04), 32-40.  
<http://doi.org/10.3969/j.issn.1007-1466.2018.04.004>
- 王广州, 张丽萍(2017). 全面两孩下的生育意愿与生育行为研究—中国低生育水平下的二孩生育意愿研究. *青年探索*, 17(05), 5-14.  
<http://doi.org/10.13583/j.cnki.issn1004-3780.2017.05.001>
- 魏炜, 林丽梅, 卢海阳, 郑思宁(2019). 主观幸福感, 公共教育满意度对居民二孩生育意愿的影响—基于CGSS实证分析. *社会发展研究*, 6(3), 120-134.
- 徐帅, 石婧瑜(2019). 北京市孕妇二孩生育意愿及其影响因素调查. *中国妇幼保健*34(10), 2372-2376.  
<http://doi.org/10.7620/zgfybj.j.issn.1001-4411.2019.10.62>
- 许静(2010). 中国低生育水平与意愿生育水平的差距. *人口与发展*, 16(1), 27-37. <http://doi.org/10.3969/j.issn.1674-1668.2010.01.004>
- 杨菊华(2018). 流动人口二孩生育意愿研究. *中国人口科学*, 184(1), 74-84.
- 杨晓, 高玲玲, 张振香, 伍东红, 张艳(2014). 中文版育儿胜任感量表在产妇中应用的信效度检验. *中华护理杂志*, 49(7), 881-885.  
<http://doi.org/10.3761/j.issn.0254-1769.2014.07.029>
- 赵琳华, 吴瑞君, 梁翠玲(2014). 大城市“80 后”群体生育意愿现状及差异分

析—以上海静安区为例. 人口与社会, 30(1), 55-59.

<http://doi.org/10.14132/j.2095-7963.2014.01.015>

郑诗泽(2019). 妇女理想子女数的影响因素分析—来自2011年中国健康与营养调查数据的发现. 统计与管理, 258(01), 75-80.

<http://doi.org/10.16722/j.issn.1674-537x.2019.01.017>

中国国家统计局. (2015). 按年龄分第一/二孩次出生人口.

<https://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

中国国家统计局. (2020). 就业人员.

<https://data.stats.gov.cn/easyquery.htm?cn=C01&zb=A03060H&sj=2020>

0

中国国家统计局. (2021a). 人口. <http://www.stats.gov.cn/>

中国国家统计局. (2021b, 05, 11). 第七次全国人口普查主要数据情况.

[http://www.stats.gov.cn/tjsj/zxfb/202105/t20210510\\_1817176.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2105/t20210510_1817176.html)

中国国家统计局. (2021c, 05, 19). 2020城镇非私营单位就业人员平均工资  
97379元.

[http://www.stats.gov.cn/tjsj/zxfb/202105/t20210519\\_1817667.html](http://www.stats.gov.cn/tjsj/zxfb/202105/t20210519_1817667.html)

中国教育部(2021,08,27). 2020年全国教育事业发展统计公报.

[http://www.moe.gov.cn/jyb\\_sjzl/sjzl\\_fztjgb/202108/t20210827\\_555004.html](http://www.moe.gov.cn/jyb_sjzl/sjzl_fztjgb/202108/t20210827_555004.html)

周陈凤, 王桂英, 杨希晨, 孟琦, 刘任鹏, 于心雨, 董彬(2019). “全面二孩”政  
策实施后山东省适龄人群生育意愿研究. 绿色科技, 91(8), 257-260.

朱明宝, 杨云彦(2017). 幸福感与居民的生育意愿—基于 CGSS2013 数据的  
经验研究. 经济学动态, 17(3), 52-61.

## 부록. 설문지

### 부록 1. 한국어 설문지<sup>2)</sup>

#### - 응답자 선정 질문 -

SQ1.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설문 중단      ② 여

SQ2. 귀하는 결혼한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 중단

SQ3. 귀하는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입양, 재혼 자녀 포함)

- ① 예                          ② 아니오 → 설문 중단

SQ4. 귀하는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입양, 재혼 자녀 포함)

총  명 → 1명 아닌 자 설문 중단

SQ5. 귀하는 현재 임신중입니까?

- ① 예 → 설문 중단      ② 아니오

SQ6. 귀하의 자녀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까?

- ① 예 → 설문 중단      ② 아니오

---

2) 독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한국어 설문지를 제시하였으며, 실제 조사는 부록 2의 중국어 설문지를 사용하였음

- 다음은 자녀 관련 태도 및 출산의향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1. 귀하는 앞으로 3년 이내에 둘째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얼마나 있습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다  
 ③ 약간 있다 ④ 매우 있다

2. 자녀에 대한 다음에 태도에 귀하는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가 되는 것은 인생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2	자녀는 부부간의 관계를 더 굳건 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3	자녀가 있는 사람들은 노년에 외롭다.	①	②	③	④
4	자녀가 있으면 노후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 자녀를 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 다음은 양육 및 가사분담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숫자를 입력하거나 귀하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3. 최근 30일 동안, 귀하의 육아 시간은 하루 평균 몇 분입니까?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먹이기, 목욕하기, 옷 입히기, 같이 놀아주기, 재우기 등)

예: 하루 평균 2시간 30분이라면 '150'분이라고 입력

주중: 하루 평균 □□□분

주말: 하루 평균 □□□분

4. 최근 30일 동안, 귀하 남편의 육아 시간은 하루 평균 몇 분입니까?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먹이기, 목욕하기, 옷 입히기, 같이 놀아주기, 재우기 등)

예: 하루 평균 2시간 30분이라면 '150'분이라고 입력

주중: 하루 평균 □□□분

주말: 하루 평균 □□□분

5. 귀하는 배우자와의 양육분담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공평하지 않다 ② 별로 공평하지 않다

③ 약간 공평하다 ④ 매우 공평하다

6. 최근 30일 동안, 귀하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몇 분입니까?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식사준비 및 설거지, 세탁 및 다림질, 집안 청소, 장보기 등)

예: 하루 평균 2시간 30분이라면 '150'분이라고 입력

주중: 하루 평균 □□□분

주말: 하루 평균 □□□분

7. 최근 30일 동안, 귀하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하루 평균 몇 분입니까? 주중과 주말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식사준비 및 설거지, 세탁 및 다림질, 집안 청소, 장보기 등)

예: 하루 평균 2시간 30분이라면 '150'분이라고 입력

주중: 하루 평균 □□□분

주말: 하루 평균 □□□분

8. 귀하는 배우자와의 가사분담이 얼마나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공평하지 않다 ② 별로 공평하지 않다

③ 약간 공평하다 ④ 매우 공평하다

9. 귀댁에는 귀하 부부 이외에 가사 및 육아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10번으로 이동)

9-1.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 ① 나의 시부모 ② 나의 친정부모 ③ 지인 및 친척 ④ 가사도우미

- 다음은 부모역할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10. 귀하는 자녀 양육비로 인해 경제적인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고 계십니까?

- ① 전혀 받지 않는다 ② 별로 받지 않는다  
③ 약간 받는다 ④ 많이 받는다

11. 다음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하는 보기를 선택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⑤
2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부모 역할을 잘못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아이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아이를 더 친근하고 따뜻하게 대하는 것이 어렵게 여겨진다.	①	②	③	④	⑤
6	요즘은 육아정보가 너무 다양하여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7	아이가 태어난 후 예전만큼 나의 생활이 즐겁지 않다.	①	②	③	④	⑤
8	양육비용이 부담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9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내 탓인 것 같아 괴롭다.	①	②	③	④	⑤
10	피곤할 때 아이가 놀아달라고 보채면 귀찮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11	모임에 가면서도 아이 때문에 그리 즐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다음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감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평소 느낌이나 생각과 일치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보기지를 선택해주십시오.

문항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 다
1	나의 행동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되면 자녀를 돌보는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나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나는 엄마로서의 일을 잘 할 수 있고, 모든 어려움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나는 자녀 돌보는 능력과 개인적인 기대를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나는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엄마로서 지내온 시간을 생각해볼 때, 나는 부모역할에 매우 익숙해졌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나는 좋은 부모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는 일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 다음은 부부관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13. 귀하는 다음의 문항별로 얼마나 만족하시는지 해당하는 보기를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내용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귀하는 배우자로서의 남편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귀하는 결혼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귀하는 남편과의 관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14. 자녀가 생긴 이후 귀하의 부부관계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 ① 매우 나빠졌다 ② 약간 나빠졌다 ③ 변화 없다
- ④ 약간 좋아졌다 ⑤ 매우 좋아졌다

• 다음은 인구학적 요인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15. 귀하는 몇 년에 태어나셨습니까? (4자리 연도로 입력, 예 1989)

□□□□년

16. 귀하의 배우자는 몇 년에 태어나셨습니까? (4자리 연도로 입력, 예 1989)

□□□□년

17.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및 이하 ② 고등학교 졸업 ③ 전문대학(3년제) 졸업
- ④ 대학교 졸업 ⑤ 대학원 졸업 이상

18. 귀하 배우자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중학교 졸업 및 이하
- ② 고등학교 졸업
- ③ 전문대학(3년제) 졸업
- ④ 대학교 졸업
- ⑤ 대학원 졸업 이상

19. 귀하 자녀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
- ② 여

20. 귀하 자녀는 몇 년에 태어났습니까? (4자리 연도로 입력, 예 2015)

□□□□년

21. 귀하는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까?

\* 일이란 ‘지난 1주일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1시간 이상 일을 하였거나, 돈을 받지 않고 가족이 경영하는 가게나 공장, 농장 등에서 18시간 이상 일한 것’을 의미함.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도 일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함

- ① 예
- ② 아니오 (-> 25문항으로 이동)

22. 귀하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 ① 노동자
- ② 농민
- ③ 공무원
- ④ 회사원
- ⑤ 자영업자
- ⑥ 군인
- ⑦ 기타(기입: \_\_\_\_\_)

23. 귀하는 일하는 시간을 얼마나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 ① 조절할 수 없다
- ② 조절하기 힘들다
- ③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 ④ 쉽게 조절할 수 있다

24. 귀하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전)

- ① 1,000위안 이하
- ② 1,001-3,000위안
- ③ 3,001-5,000위안
- ④ 5,001-7,000위안
- ⑤ 7,001-9,000위안
- ⑥ 9,000위안 이상

25. 귀하 배우자의 직업은 다음 중 무엇에 해당합니까?

- ① 노동자
- ② 농민
- ③ 공무원
- ④ 회사원
- ⑤ 자영업자
- ⑥ 군인
- ⑦ 수입이 없음
- ⑧ 기타(기입\_\_\_\_\_)

26. 귀하 남편의 월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세전)

- ① 1,000위안 이하
- ② 1,001-3,000위안
- ③ 3,001-5,000위안
- ④ 5,001-7,000위안
- ⑤ 7,001-9,000위안
- ⑥ 9,000위안 이상

27. 귀하의 거주지역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① 동부지역

(베이징, 텐진, 허베이, 랴오닝, 상하이, 장쑤, 저장, 푸젠, 산둥, 광동,  
하이난)

- ② 중부지역

(산시, 길림, 헤이룽장, 안후이, 장시, 허난, 후베이, 후난)

- ③ 서부지역

(사천, 충칭, 구이저우, 원난, 티베트, 섬서, 간쑤, 칭하이, 넝샤, 신장,  
광시, 내몽골)

28. 귀하의 거주도시는 어디십니까? (도시명 직접입력)

29. 귀하 및 배우자 중 한 분이라도 현재 살고 계신 지역의 호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 부록 2. 중국어 설문지

### 已婚女性二孩生育意愿影响因素问卷

#### -调研对象筛选问卷-

SQ1. 您的性别是：

- ① 男 -> 请停止答卷      ② 女

SQ2. 您是否和丈夫住在一起：

- ① 是                          ② 否 -> 请停止答卷

SQ3. 您有几名子女（含领养，再婚子女）：

共  名 -> 非1名者，请停止答卷

SQ4. 您是否和您的子女住在一起：

- ① 是                          ② 否 -> 请停止答卷

SQ5. 您现在是否怀孕：

- ① 是 -> 请停止答卷      ② 否

SQ6. 您的子女是否已经上小学：

- ① 是 -> 请停止答卷      ② 否

## 一. 对待子女的观念以及二孩生育意愿

请根据自己的实际情况，判断并选出这些句子与您的符合程度

1. 您未来三年内会生二孩吗？

- ① 一点都不想生 ② 不太想生 ③ 有点想生 ④ 非常想生

2. 关于对待子女的态度的描述，请根据自己的实际情况，判断这些句子与您的符合

程度并选出与您最相符的选项

内容		完全不符合	不太符合	说不清楚	有些符合	完全符合
1	成为父母是人生中最有价值的事	①	②	③	④	⑤
2	子女可以让夫妻关系更牢固	①	②	③	④	⑤
3	有子女可以让老年生活没那么孤独	①	②	③	④	⑤
4	老了以后，可以在子女那得到经济上的帮助	①	②	③	④	⑤
5	为了传宗接代必须要有子女	①	②	③	④	⑤

## 二. 关于家务分担的问题

请根据自己的实际情况，填写数字或者选出与您最相符的选项

3. 近30天内，您平均每天用多少时间照顾子女？请把工作日和周末分开作答

(包括穿衣，洗澡，喂饭，陪子女玩耍，哄睡等)

例：如果平均每天2小时30分钟的情况，请填写150

工作日： 每天平均 □□□分      周末： 每天平均 □□□分

4. 近30天内，您的丈夫平均每天用多少时间照顾子女？

(包括穿衣，洗澡，喂饭，陪子女玩耍，哄睡等)

例：如果平均每天2小时30分钟的情况，请填写150

工作日： 每天平均 □□□分      周末： 每天平均 □□□分

5. 您觉得您和您丈夫的育儿时间分配公平吗？

- ① 一点都不公平 ② 不太公平 ③ 还算公平 ④ 非常公平

6. 近30天内，您平均每天用多少时间做家务？

(包括买菜，刷碗做饭，洗衣服，晾衣服，打扫屋子卫生 等)

例：如果平均每天2小时30分钟的情况，请填写150

工作日：每天平均 □□□分 周末：每天平均 □□□分

7. 近30天内，您丈夫平均每天用多少时间做家务？

(包括买菜，刷碗做饭，洗衣服，晾衣服，打扫屋子卫生 等)

例：如果平均每天2小时30分钟的情况，请填写150

工作日：每天平均 □□□分 周末：每天平均 □□□分

8. 您觉得您和您丈夫的家务时间分配公平吗？

- ① 一点都不公平 ② 不太公平 ③ 还算公平 ④ 非常公平

9. 除了您夫妻二人，还有其他人帮助您照料子女吗？

- ① 有 ② 没有 (请直接回答第10题)

9-1. 是谁在帮您照料子女？

- ① 我的公婆 ② 我的父母 ③ 熟人，亲戚 ④ 保姆

### 三. 关于父母角色的问题

请根据自己的实际情况，判断这些句子与您的符合程度并选出与您最相符的选项

10. 您有感受到养育子女带来的额外的经济压力吗？

- ① 一点压力都没有 ② 不怎么有压力 ③ 有点压力 ④ 很有压力

11. 下面是关于养育子女过程中关于您感受的陈述句，请根据自己的实际情况，判断这些句子与您的符合程度并选出与您最相符的选项

内容		完全不符合	不太符合	说不清楚	有些符合	完全符合
1	我不确信自己能否成为一名好母亲	①	②	③	④	⑤
2	我没有把孩子养育好的自信	①	②	③	④	⑤
3	有时候我会觉得由于我没做好母亲的角色而导致我的孩子不如其他的孩子	①	②	③	④	⑤
4	有时候我会想要逃离我的孩子	①	②	③	④	⑤
5	我觉得让我比现在更加友好，亲切的对待孩子有些困难	①	②	③	④	⑤
6	面对现代各种各样的育儿信息，我不知道该怎么选择	①	②	③	④	⑤
7	我觉得孩子出生以后，我的生活没有之前快乐	①	②	③	④	⑤
8	养子女的费用让我很有负担	①	②	③	④	⑤
9	当看到孩子表现的没有安全感的时候，我会不安，觉得是我的问题	①	②	③	④	⑤
10	当我累的时候，孩子让我陪他玩我会觉得烦	①	②	③	④	⑤
11	参加聚会的时候我会因为孩子的原因觉得不尽兴	①	②	③	④	⑤

12.下面的陈述句，请根据自己的实际情况，判断这些句子与您的符合程度并选出与您最相符的选项

内容		完全不符合	比较不符合	不太符合	有些符合	比较符合	完全符合
1	当我明白到自己的行为如何影响孩子时，照顾孩子的问题就很容易解决	①	②	③	④	⑤	⑥
2	我认为自己可以作为其他初为母亲的模范，让他们学习怎样	①	②	③	④	⑤	⑥

	当一位好母亲					
3	我能胜任母亲的工作，而且任何困难均可迎刃而解	①	②	③	④	⑤ ⑥
4	我认为自己在照顾孩子方面的 能力与个人期望相符合	①	②	③	④	⑤ ⑥
5	当孩子表现困扰时，我比其他 人更了解导致这种情况的原因	①	②	③	④	⑤ ⑥
6	目前我觉得自己能全面了解一 位母亲应有的角色	①	②	③	④	⑤ ⑥
7	我深信自己拥有作为一位好母 亲应有的技巧	①	②	③	④	⑤ ⑥
8	作为一位好母亲本身就是一项 奖赏	①	②	③	④	⑤ ⑥

#### 四. 关于夫妻关系的问题

请根据自己的实际情况，判断这些句子与您的符合程度并选出与您最相符的选项

#### 13. 请选出您对下面各个问题的满意程度

内容		极度 不满 意	不 满 意	有 点 不 满 意	普 通	相 对 满 意	满 意	非 常 满 意
1	你的丈夫作为一个配偶，你对 他的满意程度有多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2	你对你的婚姻满意程度有多 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3	你对你们夫妻之间关系的满意 程度有多少？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14. 子女出生以后，你们夫妻之间的关系有什么变化吗？

- ① 变得很差 ② 变得有点差 ③ 和以前一样
- ④ 变好了一点 ⑤ 比以前更好了

## 五. 个人基本情况

请选出和您符合的选项，或按照要求填写

15. 您出生于哪一年：（请填写四位数年份，例如 1989）

□□□□年

16. 您丈夫出生于哪一年：（请填写四位数年份，例如 1989）

□□□□年

17. 您的学历：

- ① 初中毕业及以下 ② 高中毕业 ③ 专科毕业
- ④ 本科毕业 ⑤ 硕士毕业及以上

18. 您丈夫的学历：

- ① 初中毕业及以下 ② 高中毕业 ③ 专科毕业
- ④ 本科毕业 ⑤ 硕士毕业及以上

19. 您子女的性别：

- ① 男 ② 女

20. 您的子女出生于哪一年：（请填写四位数年份，例如 2015）

□□□□年

21. 您现在是否有工作？

※工作是指‘过去一周内，从事过一小个小时以上的赚钱的工作，或者并未赚钱，但是在自家经营的商店，工厂，农场等工作18小时以上’。如果您现在在休产假，也视为在工作。

- ① 是 ② 否 （请直接回答第25题）

22. 您的职业：

- ① 工人 ② 农民 ③ 公务员 ④ 企业人员
- ⑤ 商人 ⑥ 军人 ⑦ 其他(\_\_\_\_)

23. 您的工作时间可以自由调节吗？

- ① 无法调节 ② 调节比较困难 ③ 可适当调节 ④ 可随意调节

24. 您的税前月收入：

- ① 1000元以下 ② 1001-3000元 ③ 3001-5000元  
④ 5001-7000元 ⑤ 7001-9000元 ⑥ 9000元以上

25. 您丈夫的职业：

- ① 工人 ② 农民 ③ 公务员 ④ 企业人员  
⑤ 商人 ⑥ 军人 ⑦ 无业 ⑧ 其他(\_\_\_\_)

26. 您丈夫的税前月收入：

- ① 1000元以下 ② 1001-3000元 ③ 3001-5000元  
④ 5001-7000元 ⑤ 7001-9000元 ⑥ 9000元以上

27. 您的居住地区是：

- ① 东部地区  
(北京, 天津, 河北, 辽宁, 上海, 江苏, 浙江, 福建, 山东, 广东, 海南)  
② 中部地区  
(山西, 吉林, 黑龙江, 安徽, 江西, 河南, 湖北, 湖南)  
③ 西部地区  
(四川, 重庆, 贵州, 云南, 西藏, 陕西, 甘肃, 青海, 宁夏, 新疆, 广西,  
内蒙古)

28. 您居住的城市是： \_\_\_\_

29. 您和您的丈夫是否至少有一人有居住地的户籍？

- ① 是 ② 否

## 中文摘要

近年来，中国的低生育率引起全球关注，中国自1982年起实施的计划生育政策到2016年改为全面二孩政策，2021年8月起开始推行三胎政策。但是，中国的生育率却稳步下降，2020年总和生育率低至1.3。迄今为止，与中国低生育率相关的研究和政策讨论都集中在经济因素上，然而，中国女性在抚养第一个孩子时作为母亲和妻子的经历有可能影响她们生育第二个孩子的意愿。

本研究基于家庭发展理论，考察了中国女性在育儿阶段的主要发展任务，如适应父母角色、夫妻分担育儿、婚姻适应等是否影响中国已婚妇女的二孩生育意愿。本研究分析了315名已婚中国女性的网络问卷数据，这些女性有且只有一个学龄前的子女，并且与子女及丈夫共同居住。本研究是以因变量为三年内的二孩生育意愿，自变量为适应父母角色（养育效能、育儿心理压力和育儿经济压力）、夫妻分担育儿（丈夫的育儿时间比例、育儿分担的公平性感知），以及婚姻适应（当前婚姻关系满意度和分娩后婚姻关系变化），控制变量包含本人和丈夫的教育水平、本人和丈夫的收入、本人的年龄、第一个孩子的年龄、第一个孩子的性别，以及育儿是否有育儿帮手来进行的多元回归分析。

本研究的主要结果如下：首先，在适应父母角色的发展任务中，育儿经济压力是二胎意愿的唯一预测因素。换句话说，那些在抚养学龄前儿童时经历了高度经济养育压力的人不太可能有再要孩子的意愿。其次，关于育儿分工的发展任务，育儿公平感知与二胎意愿显著相关。换句话说，如果母亲认为她们与丈夫平等分担育儿责任，她们就更有可能打算要第二个孩子。第三，在婚姻适应的发展任务中，产后婚姻关系的变化与生育二胎的意向有关。换句话说，如果他们认为成为父母后他们的婚姻关系有所改善，那么他们想要二孩的意愿就更高。

本研究的意义在于运用家庭发展理论的发展任务概念，考察了低生育率严峻的中国已婚妇女在育儿阶段生育二胎意愿的预测因素。这项研究的结果表明，除了中国目前关注的经济对策外，还需要从夫妻关系方面来考虑低生育现象的应对策略。

关键词：家庭发展理论，中国家庭，低生育率，生育意愿，父母角色，育儿分工，夫妻关系

学号：2018-21990

Abstract

# Developmental Tasks During the Childrearing Stage and Second Birth Intentions among Chinese Married Women

Yu, Kunping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and Family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ow fertility rates in China have received global attention. The one-child policy that had been in place since 1982 was changed to two-child policy in 2016 and then to three-child policy in 2021. However, China's fertility rate has declined steadily, and the total fertility rate has fallen as low as 1.3 in 2020. So far, studies and policy discussions related to the low fertility rate in China have focused on economic factors, but what Chinese women experience as a mother and as a spouse when they raise the first child may be associated with their intentions to have another child.

Based on family development theo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main developmental tasks during the childrearing stage, such as adaptation to parenting, sharing childcare responsibilities with the partner, and marital adjustment with a child are related to second birth intentions among Chinese married wome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15 married Chinese women who lived with a spouse and a child who did not enter the elementary school yet. Data were collected through an online survey in February and March 2021. For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dependent variable was the level of intentions to have a second child within three years. The independent variables were adaptation to parental roles (parenting efficacy, psychological parenting stress, and economic parenting stress), the sharing of parenting by the couple (the ratio of husband's childcare time, perceived equity of sharing child care responsibilities), and adaptation to the marital relationship (current marital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marital relationship changes after childbirth). The control variables were the couple's education level, income, wife's age, first child's age and gender, and presence of a parenting assistant.

First,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parenting adaptation, economic parenting stress was the only predictor of second birth intentions. In other words, those who experienced a high level of economic parenting stress while raising a preschool child were less likely to have an intention to have another child. Second, concerning the developmental tasks of the division of child care, perceived fairness of childcare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intention to give birth to a second child. In

other words, when the mothers perceived that they were equally sharing childcare with their husbands, they were more likely to intend to have a second child. Third, among the characteristics of marital adaptation, the change in the marital relationship after childbirth had an association with the intention to give birth to a second child. In other words, when they perceived that their marital relationship improved after becoming parents, their intention to have a second child was higher.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applying the developmental task concept of family development theory to investigate the factors predicting married women' intentions to have a second child during the childrearing stage in China, where the low fertility phenomenon is highligh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n addition to the economic countermeasures currently being focused on in China, policymakers need to consider gender issues and marital relationship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s.

Keywords: birth intentions, Chinese families, family development theory, low fertility, parenting adaptation, division of childcare, couple relationships,

*Student Number:* 2018-21990